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65호
2024년 10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이상강 회장단, 시카고·미시간·뉴잉글랜드·조지아 등 동부 4개 지부 방문 차 몰고 6700마일... 각 지부에 장학금·후원금 선물



시카고 지부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이 시카고 지부 동문들과 식사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했다.



미시간 지부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이 미시간 지부를 방문해 동문들을 직접 만났다.



뉴잉글랜드 지부

이상강 미주동창회장단이 뉴잉글랜드 지부 동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지아 지부

이상강 미주동창회장단이 조지아 지부 동문들과 단체사진을 찍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27개 지부 대단한 동문님들이 여기 저기 미국 각지에서 나름대로 정상급에서 또는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 막연히 서류상으로만 대했던 지부들과 이름과 얼굴이 일치되지 않는 동문들을 이번 장장 6700마일의 동부 대륙을 가로질러 만나면서 많은 감회를 느꼈다.

직접보고 그 지부의 성질과 특성도 알게 되었다. 동창회가 없었다면 이렇게 뭉쳐져서 어울어지는 광경을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의 소통창구인 동창회보지가 없었다면 고독한 타지에서의 생활이 되었을지 참으로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큰일을 하고 있다.

동창회보지가 또한 어떤 분에게는 바로 버려지는 휴지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끔찍히도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된다. 회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각 지부의 서로의 소식을 접하면서 “이렇게들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그 자체로도 값어치가 있다고 느껴진다.

멀리 다녀보고 나니 더 애절해지는 감정이 생긴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소통의 지름길이라 생각하니 협조를 앞아서 구하는 것보다 서로의 요구되는 바를 이해하며 들으니 이것이 핵심적인 해결책이었나 싶다. **취재=백옥자 미주동창회 총무국장(음대 71) <2·3면으로 계속>**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오른쪽)이 장학금 2000달러를 지원한 것에 대한 감사로 조규승 시카고 지부 회장이 답례품을 전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이 뉴잉글랜드 최진민 회장에게 장학금 2000불과 관악연대 지원금 2500달러를 전하는 모습.



그 먼길을 달려와 지부 활성화 위한 지원금까지

시카고 지부 방문

8월 25일 아침 시카고 지부 방문을 위해 떠났다. 첫날 운전을 무척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대륙의 길이 잘 만들어졌다.

의대 나오신 이상강 회장님께서 운전을 주로 하셨는데 2주 여정이라 빨리 달려야 해서 나는 도와 드리지를 못했다.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두 내외분께서는 하트랜드에서 LA로 많이 달려 본 몸의 습성이 있어 의외로 잘하셔서 안심이었다.

맑은 하늘에 밝을 내다 보며 가는 풍경이 하늘은 CinemaScope이다. 오후에는 비도 오고 첫날은 조금 고생했다.

8월 28일 점심 골든클럽 동문님들과 Chicago Galbi House에 도착했는데 9월 노동절 휴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문님들이 나오셨다.

점심은 우선 Gold Club 동문님들과 하고 저녁은 활성화된 관악연대 동문들과 했다.

시카고 동문님들은 오랜 전통으로 만들어진 참으로 탄탄한 선후배의 위계질서와 관악연대 동문들의 활성이 활발하다.

골든클럽은 골프하시는 분의 모임이 아니라 모든 장년되신 분들의 모임이며, 학식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제는 어느 지역을 가도 한국 음식점이 LA 보다 크고 맛도 너무 좋다. 그만큼 한국분들의 이주가 타지역에도 많이 가고 생활도 나아지고 활동도 많아지고 모임도 많아졌다.

시카고는 뉴욕, LA 다음으로 3번째로 큰 도시며 미국 중서부에서는 가장 큰

도시라고 한다. 270만명(광역 인구 950만)이다. 표어가 I Will 나는 한다와 정원 속의 도시라고 한다. 오대호와 미시시피강을 이어주는 육수 수송지로 발전 각 분야에 국제적인 중심지이다.

시카고는 미주동창회에 등록된 동문 숫자는 IL 지역만 볼 때 543여 동문 정도 살고 있다. 그 중심지에 사는 동문들은 각 분야에서 특출난 서울대의 재능을 발휘하고 계신다.

간담회에는 소진문 고문(치대 58), 한경진 골든클럽 회장(상대 59), 구경회 고문(의대 59), 장기남 고문(의대 62), 안창혁 GC 부회장(사대 65), 김영원 GC 총무(사대 67), 김호범 고문(상대 69), 박종희 고문(의대 69), 조규승 시카고 회장(문리대 72)께서 나오셨는데 연휴를 방해한 것 같아 많이 미안했다. 그러나 만나니 좋았고, 매우 반겨주셨다.

관악연대 모임 동문들도 씩씩하고 어땡게서라도 모임을 하려고 가족 중심으로 개인 Studio에서 한다.

아이들을 맡기고 나올 수 없어 함께 만나면서 더 가족분위기를 만드는 모습에서 얼마나 젊은 동문들이 활성화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니 적은 기금이나마 참 뜻깊은 마음을 전달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순수하고 아주 학창시절의 모습들이 엿보였다.

시카고 지부 조규승 회장은 인삿말에서 “미주 동창회 회장단이 시카고 동창회의 장학금 관리위원장님들, 골든클럽 임원님들과 관악클럽 임원님들과 함께하신 간담회에서 해주신 따뜻한 격려와 진심어린 도움의 말씀은 시카고 지역 동창회원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다”며 “회장님이 전달해 주신 시카고

동창회의 장학금 지원금과 관악클럽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은, 저희가 앞으로 더 나은 동창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시간 지부 방문

8월 29일 연안이 길다는 미시간 지부에 도착 이광진 회장님께서 호텔로 오셔서 Kabuki restaurant으로 안내했다. 미시간 지부는 2년 전에 새 지부로 추가 되었다. 그 숫자는 MI지역만 볼 때 121 동문들이 현재 미주동창회에 가입되어 있다.

임원진은 관악연대 분들이 많은데 아직 관악연대 동문들은 많지가 않아 모임은 없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여 그 기금을 받을 날을 기약한다고 했다.

고광국(공대 54), 고국화(공대 56) 부부 이사 / 유경은 이사 (간호대 62) / 고선희 이사 (문리대 63) / 이성길 이사 (의대 65) 서울의대미주총동창회 전 회장 / 한숙영 이사 (문리대 70) / 송원옥 이사 (보건대학원 73) / 이광진 회장(공대 81) / 이호정 총무(음대 81) 등이 주축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고광국, 고국화 부부 동문께서 장학기금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미시간 지부도 이끌어 주시리라 믿어져 안심이며 이성길 이사님 외 다른 여자 동문 이사님들이 많이 계셔 집안 살림은 걱정을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시간 지부 이광진 회장은 인삿말에서 “미주동창회 회장단 세 분의 이번 방문으로 두 번을 놀랐는데 시카고에서 오신다고 하여 당연히 LA에서 시카고까지는 항공편으로 오셨다고 생각했

데 차를 몰고 오셨다고 하셔서 놀랐고, 보스톤의 뉴잉글랜드 지부를 방문하신 후에는 다시 차를 몰고 애틀랜타 지부를 방문하시고 LA로 동서횡단을 하신다는 말씀에 더욱 놀랐다”며 “이번 미주동창회 회장단 세 분이 저희 미시간 지부에 오셔서 지부 이사님들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며 환담을 하게 된 것은 이제 2년이 갓 지난 미시간 지부에 또 하나의 마일스톤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잉글랜드 지부 방문

가장 오래된 중심 도시 Boston을 시작으로 영국 청교도가 건설한 오래된 도시 독립전쟁의 사적이 유명한 곳, 뉴잉글랜드 북동부 주의 6개 주, 이민 온 아일랜드 이주민들의 정착, 교육도시로 고풍스러운 하버드대, MIT, 화이트 마운틴, 스키, 보트, 자전거, 메인주 아카데미 국립공원, 신선한 해산물, 랍스터, MIT 요트 팀의 각색의 돛을 달고 연습하는 광경 등 관광지로도 풍요로운 곳 뉴잉글랜드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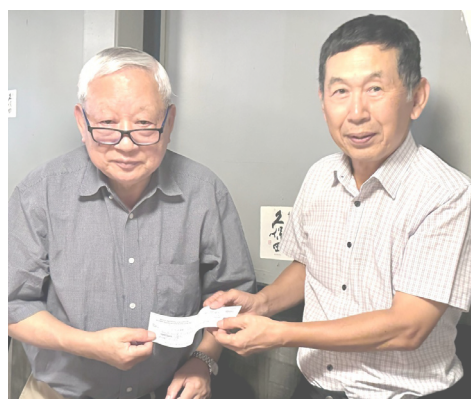
여기에 살고 있는 동문 수는 MA 지역만 188여명의 동문들이 산다.

9월2일 갑자기 오게 된 일찌에도 20여명의 동문님들이 Feng Shui 중국식당에 점심모임으로 참석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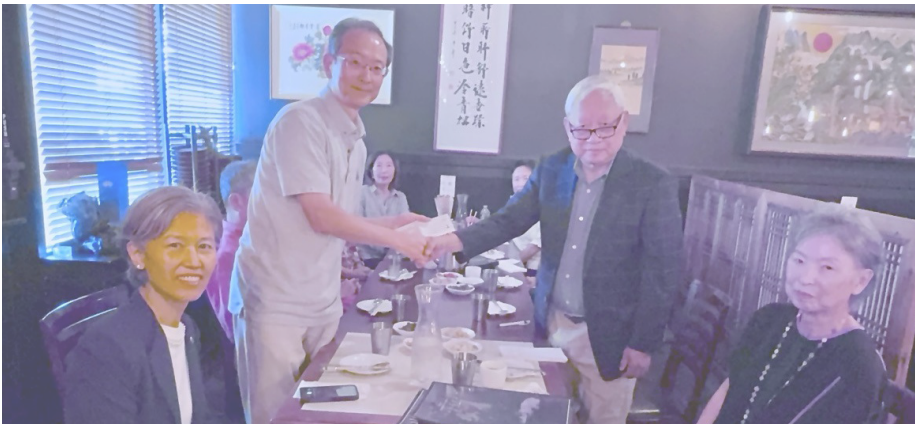
김경일(공대 58) 회칙위원장 / 김은한(의대 60) 이사 부부 / 이규진(약대 60) 감사 / 윤상래(수의대 62) 부부 장학기금관리위원장 / 박영철(농대 64) 장학기금관리위원 / 정선주(간호대 68) 부부 이사 / 윤은상(상대 66) 부부 16대 전 회장 / 이강원(공대 66) 17대 전 회



(맨 왼쪽 사진부터) 이상강 회장단이 시카고 지부 관악연대 동문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상강 회장(왼쪽)이 이준수 재무국장에게 관악연대 후원금 2500달러를 전달하고 있다. 김경숙 사무총장이 경기여고 동창이기도 한 박종희 동문을 오랜만에 만났다.



(맨 왼쪽 사진부터) 이상강 회장단이 시카고 지부 관악연대 동문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상강 회장(왼쪽)이 이준수 재무국장에게 관악연대 후원금 2500달러를 전달하고 있다. 김경숙 사무총장이 경기여고 동창이기도 한 박종희 동문을 오랜만에 만났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이 이광진 미시간 지부 회장에게 장학금 2000달러를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이 강창석 조지아 지부 전 회장에게 관악연대 활성화 보조금 3500불을 전달하는 모습.

“앞으로 동창회 발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할 것”

장 부부 / 흥지복 (간호대 70) 이사 / 최진민 (공대 71) 21대 현 회장 / 김유경 (음대 72) 19대 회장 / 임영호 (공대 72) 10대 회장 / 노동완 (공대84) 총무 / 전현희 회장 및 이사, 임원 동문님들이 휴일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에 17대 미주동창회 이상강 회장단이 잘 하고 있어서 나왔다고 평가해 주신데 대해 마음이 편했다.

뉴잉글랜드 지부는 윤상래 회장님의 주축 기반으로 많은 동문님들이 합심하여 운영하며, 매우 단아한 느낌을 받았다. 장학생 선발과 관악연대도 있어 기금 보조가 있었다.

젊은세대는 공부 마치면 귀국하는 동문들이 많지만 그나마 노력하고 있다.

이광원 교수님은 작년 Kaist 교수로 초빙되어 1년 여 교직하다 얼마 전 돌아왔는데 예전 이민 올 때는 Technology 가 미국이 한국보다 난 것 같아 왔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앞서 역이민 가야 되는 실정이라고 하시며 윤상래, 신응남 회장님때 같이 일하면서 동창회에 관여되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해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뉴잉글랜드 지부 최진민 회장은 인사말에서 “먼길 오셔서 방문해 주시고, 후배들을 위해 장학 후원금과 관악회 후원금을 직접 전달해 주신 회장님께 감사 드린다”며 “공자님께서도 멀리서 벗이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회장단 여러분께서 멀리서 방문해 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즐거움이었다”고 말했다.

9월 1일 묵고 있는 호텔로 미주동창회 14대 윤상래 회장님 부부께서 오셨다.

열심히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위한 노고에 감사한다는 위로와 탑스터 점심초대를 해주셨는데 예전 14대 회장때 뉴잉글랜드를 방문한 여러 동문들께 Main의 Lobster를 사주셨을 때 너무도 달고 맛있는 기억이 여지껏 입가를 맴돌아 사실 떠날 때 부터 은근히 기대했다. 참으로 여행은 식후경이라 했던가!

뉴잉글랜드 지부 모임 후에 윤은상 교수님 댁에 들렸다. 윤(박)순혜 여사는 김경숙 사무총장님과 이대부국 동기라서 오랫동안 만나 사진에서 보듯이 손을 꼭 잡고있다.

이제는 한가로이 집에서 푹푹 소리내는 목수가 되었지만 그 모습은 매우 평화로웠다.

친구와 함께 하는 홈커밍데이 및 동해 3박4일 여행 행사도 함께 하기로 했다. 지부 가는 곳마다 경기여고 친구 분들이 4시간 거리에서도 오는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어렸을 적에 지냈던 놀던 모습을 상상하며 운전하며 왔다고 해 마음이 촉촉했다.

조지아 지부 방문

9월 4일 모임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아침 7시 부터 오후 8시까지 또 다음날 아침부터 달려 조금 넉넉히 Atlanta에 도착이 되었다.

비가 자주 와 나무도 많고 청록색의 큰 나무들이 공기를 맑게 해주어 첫인상이 상큼했다.

사계절이 적당히 좋고, 한국의 큰 사업체 지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 상업의 도시이기도 하다.

Atlanta에서 북쪽에 Swanee, Duluth,

Johnscreek등 지역(서로 10분거리)에 한인들이 많이 산다.

인구증가가 많이 되었고, 타 지역에 비해 생활비가 적당하다는 좋은 지역이다. 주택도 모든 땅의 건물들이 주로 15년 이내로 널찍널찍 설계되어 있고, 1996년 Atlanta Olympic 때 길을 넓혔다는 거리가 새도시 같은 인상을 주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회원 가입 동문 수는 GA 지역만 250 여 동문이 있다.

모임 장소인 Arirang K식당으로 갔을 때 한국 식당이 이렇게 번듯하게 놀라울 정도로 조지아 특성에 맞게 넓었다. 한식, 일식, 중식을 골고루 다 갖춘 외국 분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시설과 맛이 으뜸이었다.

강창석 (의대 73) 전 회장은 이상강 회장님과 친분이 있어서인지 진수성찬으로 맞이해 주셨다.

이종호 중앙일보 대표도 LA 에서 활동하던 동문을 또 여기서 보니 열심히 살고 있는 동문들이 대견하기만 하다.

이영진 (공대 76) 교수 또한 이 지역의 장학재단을 이끌어 오고 있으며, 많은 일을 도와줄 젊은 세대를 찾고 있지만 실제로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노고를 말씀하신다.

장학재단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장학금의 액수와 학생 선정에 Donation 하는 분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돌솥 누른밥은 최고의 정점을 찍었다.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최화진 회장(음대 85)은 “직접 맞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했다”면

서 “앞으로 더욱 활발한 지부 활동으로 먼 곳까지 직접 방문, 격려해 주신 이상강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따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4개 지부 일정을 마치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동창회와 장학회 운영 및 젊은 관악세대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직접 만나서 하게 되어 더 좋았다는 점과 직접 방문한 그 성의를 각 지부 동문님들은 기금 보조 협조를 떠나서 무척 정스럽게 느끼며, 우리 지부도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회보 발행을 위해서 각 지부의 한 몫 부분을 협조해야 하겠다는 마음의 동요를 불러 일으켰다.

실지 6500여명 정도의 동문 회원 가입자 수의 1000여명 정도가 계속 지속적인 동창회비를 납부하는 실정은 어떤 이유이던 매우 저조한 현실임을 느끼며, 각 지부의 장학금 보조와 관악연대(75학번 이후)의 활성화를 위해 이상강 회장님 부부께서는 사비 10만불을 서울대 미주동창회 후원금으로 납부했다.

많은 동문님들이 종신이사비로 혹은 각부의 후원금 및 동창회비로 기부하고 계신다. 서울대가 만들어 준 나의 명예를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보답하고 계신다.

그 열정이 있기에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회보는 끊임없이 존속되며, 각 지부의 친목은 서로의 의견이 특탁하면서 돌틈니바퀴처럼 이어간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며, 멀어도 가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대생의 끈기와 배짱은 제 1위의 서울대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윤상래 전 미주동창회장 부부(맨 오른쪽)가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부부를 만나는 자리에 이상강 회장의 따님(치과의사) 부부가 4시간 거리를 운전해 함께 자리를 했다. 오른쪽 사진은 뉴잉글랜드 윤은상 교수 부부(오른쪽) 댁에 초대받은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부부.

커뮤니티 이끌 5명에게 1만달러씩 전달

제3회 SNUAA 스칼러스 장학금 수여식 온라인 개최

**이진형 박사 기조 연설
동문들 참석 축하 격려**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가 미국내 한국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3회 SNUAA 스칼러스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8월30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20대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1만달러의 장학금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5명은 ‘리+로 워터 인프라스트럭처 장학생’ 앨런 동진 리(캘리포니아, MIT)군, ‘이상강 동창회장 장학생’ 아란 클레어 정(캘리포니아, 스미스칼리지)양, ‘한백 장학생’ 이븐 리(일리노이, UIUC)군, ‘고광국 고국화 장학생’ 제레미 서훈 김(뉴욕, 스탠포드)군, ‘삼익장학생’ 이윤서(캘리포니아, USC)양 등이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은 “수상자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큰 포부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을 안다”며 “이번 장학금으로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스탠포드대의 이진형 교수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것을 지향하는 우리 커뮤니티가 사실은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었다는 알게 되면서 가까이서 살펴보기 시작했다”면서 “우리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근면하고 세계 무대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졌

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장학금 수여가 커뮤니티의 미래 투자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각자가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랑과 지원해주는 우리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정면

으로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공유하며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나와 같이 공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줌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미주동창회 집행부와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위원과 수상자 등이 40명이 참석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지난 8월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SNUAA 스칼러스 장학금 수여식 모습. [장학위원회 제공]

10월20일 홈커밍데이 ... “모교 나들이 가요”

**유홍림 총장 초청 오찬
3박 4일 동해 관광도**

오는 10월20일 모교에서 열리는 서울대 홈커밍데이 행사에 미 전역 각지의 동문들이 참석한다. 특히 미주동창회에서 공식 행사에 이어 따로 마련한 동해 관광투어에도 많은 동문이 참석하게 된다.

서울대총동창회에 따르면, ‘2024 서울대학교 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으로 명명된 이번 행사는 10월20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관악캠퍼스 버들골 풍산마당에서 열린다.

미주 동문들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오전 8시30분 캠퍼스 정문에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캠퍼스 자유 탐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같은 시간 식전 행사로 재학생 동아리 활동을 참관할 수 있고 미니게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공헌 기금 모금행사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점심 식사는 유홍림 총장과 함께 하는 오찬으로 캠퍼스내 호암교수회관에서 갖는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본부에 있는 유홍림 총장실을 방문한다.

오후 공식 행사로 풍산마당에서 열리는 데 개회식,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 행운권 추첨 등에 참여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입학 및 졸업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에 도달한 동문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행사 참가 등록은 오전 11시 부터 오후 2시까지 버들골에서 가능하며 참가자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간단한 간식과 생수가 제공되고 다양한 푸드 트럭이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행사 다음날인 21일에는 남서울CC에서 골프행사가 마련돼 있고 미주동창회가 준비한 동해 맛집 관광 투어는 22일부터 3박4일간 개최된다. 22일 서울을 출발해 김천을 거쳐 부산에서 여장을 풀고 23일에는 부산과 울산, 24일엔 울산과 경주, 25일 경주와 문경을 거쳐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 방문할 곳은 김천 직지사, 연화지를 비롯해 부산의 동백섬, 송도 해상케이블카, 해동 용궁사,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숲, 외고산 옹기마을, 간절곶, 경주 불국사, 천마총, 동궁과 월지, 보문단지, 문경의 문경새재 등이다.

이번 행사는 재학생, 교수, 동문이 함께 준비한 행사로, 서울대 음대 국악 전공 교수와 재학생, 학생회 동아리의 다채



오는 10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풍산마당에서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5일 열린 홈커밍데이행사에서 모교 응원단의 힘찬 안무에 박수 갈채를 보내는 동문들 모습이다.

로운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미주동창회 관계자는 “모교를 방문한 동문들이 홈커밍데이만 참가하고 돌아오기가 아쉬워서 추가 투어를 마련했다”면서 “고국의 맛집을 함께 방문하며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주 동문의 경우, 한국 항공편은 각자 준비해야 하고 골프비는 그린피, 카트비,

캐디비용, 중식, 석식을 포함해서 50만원, 3박4일 관광 투어는 899달러다.

홈커밍데이 모교 문의는 이메일(member@snu.or.kr)로 가능하며 골프투어 문의는 양희주 남서울 골프대리(031-709-6000), 동해맛집투어 문의는 정소영 아주관광 소장(213-388-4000), 행사 문의는 백옥자 17대 총무국장(818-395-1967)에게 하면 된다.

장병희 편집위원

이만택 동문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영예

서울대 발전기금 미주재단 이사장 10여년
헌신적 봉사 1600만불 이상 모금해 모교로



교로 보냈다. 그는 무보수로 출장 항공비, 숙박비는 물론 업무 식사비 등의 경비도 자비로 부담했으며 서울대 의대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설립해 후학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필라델피아 서재필 재단에서 봉사하며 1999년 헬렌리 장학프로그램을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

어 최근까지 227명의 한인 2세 및 타민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봉사활동으로 서울대학교로부터 2018년 동문 봉사상, 2012년 KAMA의 최고대상인 ‘최재창’ 상, 1998년 서울대 의대 동문상, 2007년 의대 미주동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 동문은 아프리카 의료봉사에도 적극 헌신하며 우간다의 모요 허스피탈(Moyo Hospital)에서 3년간 의술을 베풀 봉사와 헌신의 삶도 실천했다. 그는 서울대 의대 미주동창회장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 한인 의사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에도 헌신해서 한인의사협회(KAMA) 회장, KAMA 회보 창간 및 발간 등 많은 업적을 이루기도 했다.

이만택 동문은 뉴저지에서 캐피탈 헬스 시스템 마취과 과장으로 20여년간 재직했고, 머서 메디칼 센터 마취과 과장, 뉴욕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수술 부실장으로도 오래 근무한 의료인이다. **장병희 편집위원**

필라델피아 지부 소속 이만택(의대 52) 동문이 제 34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1991년부터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해왔다.

올해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미주재단 이사장으로 10여년 봉사해온 이 동문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33회 수상자로는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 이흥구 전 국무총리,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라인(LINE) 회장을 선정했고 그 전년도 제32회 수상자는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수학연맹 필즈상(Field’s Medal)을 받은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 겸 고등과학원(KIAS) 석학교수가 수상했다.

수학 천재로 수학계의 오랜 난제를 해결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던 허 교수는 단독 선정된 것이다.

이만택 동문의 선정은 미주 동문으로는 역대 5번째에 해당한다. 첫번째 수상은 지난 2007년 박노희(치대 68년 졸업) UCLA치대 학장이다. 이어서 2015년 이송희(간호대 50년 졸업) 세계 기독교간호재단 회장과, 주중광(약대 60) 조지아 주립대 약대 교수가 영광을 안았다.

2017년에는 김재권(불문53) 브라운대 철학과 전 석좌교수가 선정된 바 있다.

이만택 동문은 모교의 발전 기금에도 1억원 이상 기부했고 미주동창회에도 5천달러를 후원하여 종신이사 실버로 등록됐다. 이 동문은 자신의 기부 말고도 발전기금 미주재단 이사장으로 10여년간 1600만달러 이상을 모금해 모

‘미주 동문의 힘!’ ... 모교 단과대 학장들 잇단 남가주 방문

6월 수의과 대학 이어 8월 공대, 자연대 학장 LA 동문들 만나

노명호 전 미주동창회장
공대 발전 10만불 쾌척

서울대 공과대학과 자연대학 학장들이 잇달아 남가주를 방문해 단과대 동문들과 미팅을 가졌다.

공과대학 김영오 학장과 자연대학 유재준 학장은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학술회의를 마친 뒤 22일과 28일 각각 남가주를 방문했다.

김영오 공대 학장은 LA 용수산에서 남가주 공대 동문(회장 배재현)들과 회합을 가지고 “앞으로 공과대학이 미주 동문들에게 더욱 다가가 공과대학의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문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기회를 마련코자 한다”며 “특히 70년대 80년대 한국 근대화 와 산업발전을 선도했던 공과대학과 동문들의 역할을 기억하며 공대의 의상 제고와 학문적 도약을 위해 협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영오 공대 학장의 방문에 맞추어 노명호 전 미주동창회장은 공대 동문으로서 공대의 발전을 위해 10만달러

를 기부했다.

또한 유재준 자연대 학장도 28일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마치고 LA를 방문해 풀러튼에서 자연대, 문리대 동문들과 만남을 가졌다. 문리대 김종하(한국일보 LA 편집국장), 자연대 신경섭 교수 등이 주선한 모임에는 주로 남가주의 각 대학에서 교수, 창업인으로 활동하는 동문들이 참여했다.

유 학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 벨리 지역에 테크놀로지 분야의 서울대 동문들이 1백여명 까지 모이며 활발히 모임을 갖는 것에 고무됐다”며 “한국도 이제는 단과대 위주의 동창회보다는 활동영역과 학문의 통합적인 동문 만남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학장은 앞으로 자연대의 발전모델에 대한 소식을 미주 동문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계속 나누어 가겠다며 참여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6월말에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성제경 학장단이 LA를 방문해 동문 50여명을 만나 수의대 발전을 위해 많은 기부를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서울대 공대 김영오 학장이 남가주에 사는 동문들과 LA에서 만났다.



서울대 자연대 유재준 학장이 LA를 방문해 자연대, 문리대 동문들과 만났다.

60여년 같은 꿈 꾸며 같은 길 걸어온 의대 동문

뉴욕 동창회 이사장 권정덕 & 홍선경 동문 부부

식을 맞이하게 된다. 경기고를 졸업한 권 동문과 경기여고를 졸업한 홍 동문은 같은 모교 의대 58학번으로, 졸업도 같이했다. 의대 본과 시절 인연을 맺은 두 동문은 60년 동안 한결같이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꿈을 꾸며 살아왔다. 두 동문 부부를 만나 지나온 세월을 들어보았다.

6.25 전쟁 겪으며 의사의 꿈을 품다

권&홍 동문은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와, 1972년 뉴욕 의대 동창회가 창립된 직후부터 동창회 활동을 같이 해왔다. 병리학 전문의로, Lab Director로 근무하던 권 동문은 의대 미주 동창회에서 총무와 재무를 맡아 봉사했다. 오랜 기간 이사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0회 미주 의대 동창회 ‘합춘 공로상’도 받았다. 홍 동문 역시 내과, 소아과, 재활의를 거치면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의사로 살아왔다. 60년 동안 같은 길, 외길 인생을 걸어온 두 부부는 의사가 된 동기도 비슷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났다. 당시 부친은 무보수 통장 일을 하셨다. 피란을 못 간 부친은 서울에서 3개월을 지내는 동안 동네 사람들을 차출하라는 북한군 명령에 따라 주민 몇명과 함께 참호를 파셨다. 9:28 수복이 되자, 부역했다는 이유로 투옥이 되셨다. 하지만 주민들의 진정서로 간신히 살아 나오셨다. 그때 이웃에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른 정치적 상황에서도 잘 사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저 역시 제가 10살 때 6:25 사변이 났는데 피난 생활 중 말라리아가 많이 유행했다. 부친과 나도 걸렸다. 평소 조용한 성품을 가지신 부친이 갑자기 흥분하여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상하게 변하셨다. 그때 같은 피난민 중에 의사 한 분이 부친의 증상을 보시고는 말라리아 치료제의 부작용 같다고 하셨다. 그분 말대로 부친의 증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았다. 당시 어렸지만, 의사만이 가진 무한한 지식과 힘에 감동했다. 의사라는 직업은 피난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 준 순간이었다. 그래서 진로를 결정할 때 망설임 없이 의대를 택했다.”

첫 만남 그리고 결혼

두 동문은 올해로 모교 의예과 졸업 60주년을 맞는다. 지금이야 여학생이 흔하지만, 1958년도 입학 당시에는 단 두 명의 여학생이 의예과에 입학했다. 그 중 한 명이 나중에 예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홍선경 동문이었다.

“저는 예과 2년 때까지 운동에 열중하느라(야구, 태권도) 이성애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본과에 올라가니 예과 일등이 여학생이더라. 웬지 분한 생각이 들었지만 직접 만난 본 적은 없었다. 어느 날 생화학 교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뒤에 앉은 이가 내 의자를 찼다. 돌아보니 한 여학생이 겸연쩍은 표정으로



권정덕 뉴욕 동창회 이사장과 홍선경 동문은 서울대 의대 58학번 입학 동기로 60여년 같은 꿈을 꾸며 같은 길을 걸어왔다.

58년 입학 당시 여학생은 2명 결혼한 아내가 예과 수석 졸업 두 딸 손녀까지 3대 이어 의사 “즐거운 동창회 위해 힘 보탬 것”

미소를 짓는데 아주 귀엽게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친구의 조언에 따라 무작정 집으로 찾아갔다. 데이트 신청을 하자 따라 나오길래 용기를 내서 고백했더니 “좋은 친구를 잃을 것 같아서 싫다”고 하더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원하던 결혼도 했다.”

125명 의예과 입학생 중 단 두 명의 여학생이었다면 성차별은 어땠을지 궁금했다.

“그때만해도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다. ‘남녀 7세 부동석’ 사고방식이 존재하던 시절이어서 남학생들 콧대가 높았다. 특히 의대생들은 여학생에게 무관심한 척하거나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힘들었던 기억은 동숭동 문리대 뒷마당에 엉성하게 지은 가교사에서 의예과 수업을 들었는데 강의실은 벤치가 놓여 있는 작은 길을 통해서 가야 했다. 벤치에는 남학생들이 때 지어 앉아 있어서 그들의 차가운 눈길과 가끔 야유까지 받으며 강의실을 가야 하는 게 고역이었다. 따돌림과 어색하던 분위기 속에서 실험 실습을 같이했다. 그런데 본과에 진입하게 되자 점차로 누그러지더라.”

“아내가 그 정도로 차별을 느꼈는지

몰랐다. 웬지 미안하다. 난 졸업 후 바로 육군에 입대하였고, 아내는 모교 병원 인턴과 내과 레지던트로 있어서 제가 가끔 휴가를 나오면 인턴 숙소에 들렀다. 한번은 통닭을 사다 주었더니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하다.”

네 마리 토끼 잡아야 했던 유학 시절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서 칠천 겁의 선근이 쌓여 만나는 인연이라고 한다. 같은 학번으로 만나 1964년 같이 졸업한 두 동문은 1968년 Bronx Fulton에 있는 작은 성당에서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아내는 졸업 후 바로 미국으로 왔고 나는 병역의 의무를 마친 뒤 뒤따라왔다. 사실 미국 오기 전에 결혼하고 싶었다. 그런데 장모님이 반대하셨다. 내가 만아들이라서 고생시킨다는 이유였다. 이때 시골 국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신 제 모친이 예비 사돈을 찾아가 ‘아이들이 좋아하니 결혼시키자’고 설득하셨다. 그래서 겨우 약혼만 했다.”

당시 한국 의대생은 Minnesota University에서 들어온 원서로 공부하고, 전문의 과정을 밟기 위해 대부분 유학을 오던 시절이었다.

“64년 졸업생의 경우 128명의 68%

인 87명이나 왔다. 내가 유학 올 무렵은 1960년 졸업생 중 의사 자격시험(ECF-MG) 첫 합격자가 나온 시기였다. 미국 의협회(AMA)는 자국 의대 정원수를 늘리는 대신 외국 의대 졸업자(foreign medical graduate-FMG)를 데려와 수련의(Residents)로 키워서 자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폈는데 그 후부터 매년 ECFMG 합격자가 늘었다. 우리 부부도 수련만 하고 전문의가 되면 한국으로 돌아 갈려고 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격시험에 패스한 의사들에게 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펴자, 극소수만 한국에 나갔고 많은 의사가 미국에 정착했다.”

“미국에 와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때 밤잠을 설치며 공부했다. 부족한 영어는 몸으로 배우던 시절이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유학 생활을 경험한 사람은 다 아는 시련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자, 수련의사일, 공부, 가사에 육아까지 4중 고통이 겹치니 정말 힘들었다. 전 생애에 가장 바쁘고 힘든 10여 년이었다. 딸 셋을 기르면서 돌아가며 총 12명의 베이비 시터 도움을 받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 짧은 영어와 손짓발짓으로 소통해야 하니 더 힘들었다. 몸도 마음도 어찌나 힘들었는지 다시는 그 당시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다.”

세 딸, 사위, 손자들까지 16명 대가족

두 동문에게는 세 딸(Elizabeth 소아과 의사, Christina 비뇨 부인과 의사, Sabrina 변호사)과 세 명의 사위, 세 손자와 다섯 손녀가 있다. 매년 큰 명절 때면 16명의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부부의 인생 최대 기쁨과 보람은 또 무엇이 있을까?

“소위 명문 중학교와 의과대학 입학, 파란 많던 연애 기간 끝에 약혼한 아내가 군의학고에 면회 온 일 등등 없이 많다. 하지만 손녀가 의사가 되겠다는 말이 가장 기뻐다. 3대째 대를 이어 의사가 된다는 게 고마웠다. 손녀가 의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M-CAT를 봤는데 최상위권 성적이라고 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다.”

“저는 지역사회 봉사가 먼저 떠오른다. Staten Island 한인교회와 한인회가 막 조직될 무렵, 10여 명이 모인 가정 예배가 점차로 커질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보탬 게 보람도 느꼈고 기뻐다. 그때 한글학교도 없어서 한글학교 기금 모임을 위해 노력했다. 한인의 밤을 열자는 제안을 한 뒤, 비록 소고기국밥과 김치 하나였지만, 나는 주말마다 한인의 밤을

“1974년 1천여명 의대 동창 명부 만든 것 보람”

여는 주동자 중의 한 명이었다. 그 행사는 오늘날 ‘스테이튼 한인의 밤’으로 발전했다. 제가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내 말을 들으니 나도 하나 더 떠올랐다. (웃음) 의대 동창회 초대 총무 강상진(의대 59) 동문이 10여명의 동창회 명부를 만들었다. 그때 내가 명단에 실린 분들을 전화로 한 분 한 분 접촉하여 이종욱 총무(63 졸업)와 함께 천여 명의 동문으로 확보했다. 그때 모은 명단을 시작으로 1974년 의대 동창 명부를 발간했다. 명부 발간에 일조했다. 의대 동창회 일을 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낀 일이다.”

뉴욕 동창회 이사장을 맡은 소감은?
“은퇴 후 골든 클럽에 가입하여 뉴욕

동창회와 인연을 맺었다. 골든 클럽 회장님의 부탁으로 이사장을 맡기는 했으나 이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른다.

그런데 이사장직 수락 후 회칙을 보니 수정,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동안 뉴욕 동창회 회칙에는 이사장이나 회장 선임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개정 작업을 통한 수정, 보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60 여명의 이사가 모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선 각 단과대학 회장으로 구성된 상임 이사회를 대면으로 소집했고 며칠 전, 회의도 잘 마쳤다.

앞으로 김정필 회장을 잘 보필하면서 선후배가 한자리에 만나면 무조건 즐거운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 **취재=이영주(농생대 83·편집위원)**



권정덕 뉴욕 동창회 이사장(맨 왼쪽) 부부의 가족 모임. 세 딸 식구와 함께 모이면 16명 대가족이다.

‘위대한 무신론자의 믿음’ 출간한 조희철 동문 중증 위암 이모 치유 보고 유학생 전도 시작

조희철 동문(사범대74)이 최근 기독교 변증과 관련된 ‘위대한 무신론자의 믿음’이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다. 수학과 경영학,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조 동문은 중증 위암이었던 이모가 기도로 치유되는 모습을 보며 기독교인이 됐고 캠퍼스 사역과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는 여러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변증을 공부해왔다. 그의 사역과 출간 계기에 대해서 소개한다.

조희철 동문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재학중 카투사로 입대해 복무하며 경영대학원으로 진로를 바꾸게 됐다. 졸업 후 현대건설에 입사했고 2년간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웠다. 컴퓨터를 더 공부하기 위해 학비가 저렴한 파리대학으로 유학했다. 대학원 과정에서 미국 출신 교수의 도움으로 미주리 주립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했다.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

당시로서는 최첨단인 컴퓨터 사이언스로 석사까지 받았던 조 동문이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 있어서였다. LA에서 아내의 이모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모가 위암이 발견돼 한국으로 기도를 받으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도원에서 치료 받는 모습을 비디오로 보고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모는 완치되어 인삼차 정도만 소화시키던 사람이 큰 샌드위치를 모두 먹을 정도로 좋아졌고 그 이후로도 위장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모는 자신의 수명을 모두 누리고 몇 년 전에 별세했다. 이것이 조 동문이 신앙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다.

LA에 있는 개신교 신학교인 ‘미주 총



조희철 동문.

신’에 수학했고 졸업은 ‘미주 캘빈’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았다.

#캠퍼스 사역

패서디나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인 PCC(Pasadena City College)에서 시작했다. 매점 앞에 동근 석조 테이블들이 있어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곳이었다. 그 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매주 한 번 방문했는데 15년간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도는 가능하지만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PCC와 가까이 있는 Rose City Church를 찾아가서 Dan Davidson 목사에게 사역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교회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고 그 때부터 그 교회와 ‘\$2 Korean BBQ’란 이름으로 점심식사를 나누는 사역을 시작했다.

진행이 잘되서 5년간 매주 화요일에

사역을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100명의 학생들이 와서 점심을 기다리기 시작하였다.

Rose City Church는 지금 사역을 중단했지만 결과적으로 스탠포드 있던 교회가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조 동문은 LA로 LAC-C(Los Angeles City College)에서 같은 사역을 근처의 한인교회에서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했다.

#교도소 사역

교도소 사역은 LA다운타운의 MCJ(Men’s Central Jail)에서 시작했다. 매주 세번째 토요일에 기차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했다. 20년만에 그만두었다. MCJ이외에 Corcoran State Prison도 방문했다. LA에서는 3시간 정도 북쪽에 있는 Kern County에 있는 감옥이다. 매달 둘째 주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찾았다. 예배를 일요일에 2번 인도하고 금요일에 2번 성경공부를 각기 다른 7곳의 건물에서 인도했다. 팬데믹으로 교도소가 닫히는 바람에 15년간의 사역이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Norco 감옥을 알게 되어 체플린을 설득해 한 달에 한 번 첫 일요일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캠퍼스 사역

40년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인천 송도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들을 위한 준비를 했다. 조 동문은 기독교 변증 뿐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나 무슬림 심지어는 신천지와 여호와의 교회인 안산홍교회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파워 포인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에게 무슬림과 기독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춘천의 강원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캠퍼스에 가까이 있는 조은 교회와 협력하여 전도하여 양육시키는 형태가 됐다. 조 동문은 한미 양국에서 사역을 계속할 계획이다.

#변증 출간 동기

조희철 동문은 젊은이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전도 방법을 고민하다 찾다가 William Lane Craig(Reasonable Faith 대표) 박사의 변증 전도 방법을 알게 되었다. 크레이그 박사가 무신론자와 디베이트하는 동영상 보고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의 저서 4권을 사서 특히 ‘On Guard’를 탐독했다. 그동안 조 동문이 알지 못했던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되었고 너무 감동적이라 저자와 연락하여 한국어로 번역하기로 하고 출판사인 Cook Publishing에 연락하여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책이 쉽지 않아 7번을 읽고서 번역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출판사에 연락했는데 이미 한국의 모 출판사에 판권이 넘어 갔다고 하여 번역 출간을 중단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도하던 중 고 이병철 삼성회장이 남긴 ‘24가지 질문’을 떠올리고 그 질문을 다시 분석했다. 그는 변증 아니면 절대 답하기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되어 변증으로 답하기 위해 거의 7년 간을 연구하여 책을 펴내게 된 것이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우선 강의 교재용으로 100권 정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강의 내용이 변증으로 쉽지 않아 권면할 사람에게만 증정하고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해리스나 트럼프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윤기향
(법대 65)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해리스(Kamala Harris) 현 부통령과 공화당의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 여론조사(모닝컨설팅, 9/17/2024)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약 6% 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경합주에서는 박빙의 승부를 겨루고 있어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선거의 추세로부터 우리는 어느 정도 선거 결과를 유의미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고통지수(misery index)라는 경제지표이다.

고통지수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합계한 수치를 말한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더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이는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성적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자주 활용되는 경제지표이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의 두 질병으로 불릴 만큼 우리의 경제적 삶에 고통을 가져다준다. 정치인들과 언론이 고통지수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고통지수와 대통령 선거의 결과 사이에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고통지수가 낮을수록 현직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며 반대로 그것이 높을수록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역대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과거 반 세기 동안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살펴보자. 미국의 고통지수는 70년대 중반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선거가 있던 1976년 고통지수는 12.6이었는데 이러한 높은 고통지수는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포드 공화당 후보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국민들은 결국 새로운 희망을 약속한 카터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인플레이션율이 두 자리 숫자로 치솟자 카터 대통령의 1차 임기 말년에는 고통지수가 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9.6으로 뛰어 올랐다. 고통지수의 고공행진은 카터의 재

고통지수로 본 미국 역대 대통령 선거



선 도전을 좌절시켰으며 레이건 공화당 후보에게 대통령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고통지수는 계속 하락하여 대통령선거가 있던 1984년에는 11.8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경제실적을 배경으로 레이건 대통령은 먼데일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이로 이기고 20년 만에 두 번째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이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 때인 1987년에는 고통지수는 한 자리 숫자(9.8)로 낮아졌으며 레이건 정권에서 부통령을 역임했던 부시 공화당 후보는 두카키스 민주당 후보를 쉽게 꺾을 수 있었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대통령선

백악관의 인턴으로 일했던 르윈스키(Monica Lewinski)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 들롱나면서 그의 재선 가도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그러나 IT 혁명이 미국경제에 꽃을 피우기 시작한 90년대 후반 그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함께 떨어지는 ‘신경제’(new economy)의 덕을 톡톡히 봤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6년 고통지수는 8.7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성추문 사건으로 재선이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였던 그는 고통지수의 하락이라는 호재에 힘입어 성추문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그는 비교적 양호한 경제 실적(고통지

실업률 · 인플레이션 합계한 수치인 고통지수 대선 당선자 예측에 자주 활용되는 경제지표 2024년 고통지수는 7.1 역대 세번째로 낮아 경제 실적만 보면 해리스 당선 가능성 높아

수가 있던 1992년까지는 하더라도 부시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장애가 될 후보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걸프전쟁의 영웅이었던 부시 대통령도 경제의 고통지수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부시는 걸프전쟁에서 이기고 경제전쟁에서 져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는 고배를 마셨다.

미국은 1990년 7월부터 1991년 3월까지 ‘걸프전쟁 경기후퇴’를 겪었으며, 대통령선거가 있던 1992년 미국의 고통지수는 다시 10.4로 크게 뛰어 올랐다. 클린턴 후보가 1992년 선거에서 내건 캐치프레이즈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구호가 먹혀 들어간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에 나섰던 1995년 미국의 정계는 클린턴의 성추문 사건으로 시끌벅적했다. 클린턴 후보가

수: 7.4)을 고어(Al Gore) 민주당 후보에게 물려주었으나 2000년 선거에서 그는 부시 공화당 후보(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에게 패하고 말았다. 2000년대 들어와서 불기시작한 IT 혁명과 그에 따른 닷컴 버블(dot.com bubble)이 영향을 미쳤다. 이와 비슷하게 부시 대통령도 두 번째 임기를 마쳤을 때(2008) 매우 양호한 경제 실적(고통지수: 5.9)을 맥케인(John McCain) 후보에게 물려주었으나 그는 새롭게 떠오르던 미 경제의 풍운아,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했다. 그러나 맥케인 후보가 지게 된 가장 큰 패착은 역시 경제였다.

2007년 12월부터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위기로 촉발된 ‘대경기후퇴’(Great Recession)가 2009년 6월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부시 대통령이 물려준 낮은 고통지수는 저인플레이션-높

은 실업률이라는 불황형 환상이었다. 선거가 있던 2008년 인플레이션율은 0.1%이었고 실업률은 5.8%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를 마쳤을 때 그의 경제성적표는 별로 좋지 않았다. 2012년 고통지수는 9.8로서 상당히 높았으나 그는 쉽게 그의 경쟁자인 롬니(Mitt Romney) 공화당 후보를 물리쳤다. 이때의 선거 결과는 고통지수에 영향받지 않은 거의 유일한 대통령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마쳤을 때 미국의 고통지수(7.0)는 매우 낮았다. 그러나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꿈꾸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꿈은 ‘호접지몽’(나비의 꿈)이 되고 말았다. 전국적인 투표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큰 차이로 이겼지만 경합주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두 번째 임기를 위한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고통지수는 9.5까지 치솟았다. 그의 재임 중 경제 실적은 ‘C’ 학점으로 평가받을 만 했다. 이는 2020년 초에 발발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었다. 2020년 미국의 실업률은 8.1%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어야 했다.

이제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먼저 최근의 고통지수를 살펴보자.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인플레이션율(연율)은 3.11%이고 실업률은 3.99%이다. 2024년 미국의 고통지수는 7.1로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가운데 세 번째(2008년의 5.9, 2016년의 7.0)로 낮은 수준이다. 2022년 6월에는 인플레이션이 9.1%(연율)까지 치솟았지만 2024년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연율로 2.5%로 낮아졌다.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미국의 연준(The Fed)은 2024년 9월 18일 기준금리를 4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25~5.5%에서 4.75~5.0%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앞으로 미국 경제에 훈풍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금리 인하는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반대해 왔다. 이와 같이 경제 실적만을 놓고 보았을 때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는 예정된 코스대로 가지는 않는다. 언제라도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두 번이나 발생했으며 그때마다 여론은 요동쳤다. 현재로서는 2024년 대통령 선거 결과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일지도 모른다.

삶과 추억

암 투병 김정선 동문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

암 투병 중 아프리카 암환자 어린이의 치료를 돕기 위한 기금 모금 전시회를 열었던 뉴잉글랜드 김정선 동문(문리대 66)이 지난 8월29일 세상을 떠났다.

동창회보에 전시회 소식을 알리기 위해 카톡으로 얘기를 나눈 바로 며칠 뒤 그리고 기금 모금 전시회 마감을 딱 하루 앞둔 날이었다. 갑작스런 부고에 많은 뉴잉글랜드 지부 동문들이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동창회보 편집진도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 살아오신 인생이 아

름다웠는데 삶의 마무리도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인생 마지막이 자신이 그린 작품들로 르완다의 암환자 어린이를 돕기 위한 전시회였다니...

김정선 동문은 뉴잉글랜드 동창회에 참 열심이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장을 역임하고 하이킹 동호회인 산우회 초대회장을 맡고 동창회 25주년 기념 문집 발간에 앞장 서고 오죽했으면 동창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그는 동문들에게 여전히 동창회장님이었다. 지난 9월7일 열린 메모리얼 서비스에

서 후배 김종성(경영대 78) 보스턴 유니버시티 교수가 한 추도사의 한 구절을 소개한다.

“Jason was a person of extraordinary talent and character, someone who excelled in everything he set out to do, and more importantly, he did all of them with a warm heart, and with the deep care for the people around him. Whether in his professional life or in service to our community, Jason set a standard of excellence that few could match.”



“나이 들며 선반 위 에멜켈리 광대를 바라보는 횡수가 늘어났다” 눈길 맞추며 그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읽으려 한다



천양곡(의대 63)
텍사스 오스틴 거주

삶은 한 방향, 한 직선을 따라 가지 않는다. 삶의 고비 고비마다 방향을 틀며 뱅치러 꼬불꼬불 기어간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이게 어디지 하는 곳까지 이른다. 나의 삶도 어느 고비에서 새 관찰(Bird watching)하고, 다른 고비에서는 광대 수집(Clown collecting)하느라 서성거린 시기가 있다.

초등학교 어느 겨울 방학 때 사냥을 무척 즐기셨던 선친을 따라 으스스한 산 속으로 갔다. 당시 사냥총에 맞아 죽어가는 사슴의 애잔한 눈망울이 내 삶의 방향을 틀게 했다. 집에 돌아온 후 가지고 있던 낚시대와 새총(조총)을 동네 아이에게 건네 주고 다시는 생명을 가지고 놀거나 없애는 오락은 갖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문제가 생겼다. 한창 바빴던 50대에 손자가 태어난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던 것이다. 미국 할아버지들은 대체로 어린 손자를 데리고 낚시 가는 것이 일종의 전통같이 내려온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세상에 나올 손자가 꼬마가 되면 낚시 대신 그와 함께 새를 보러 다니기로 했다. 그때부터 새에 대해 공부하고 새 그림책을 사서 모았다.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어 초로의 길에 들어선 어느 날 진료실 벽에 걸려있는 피노키오에 눈길이 갔다. 그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했는지 코가 너무 길어진 우

나의 취미

스팡스러운 모습이었다. 웃음이 절로 나왔다. 동시에 고대 그리스의 가장 높은 올림푸스 산 정상에서 살았던 그리스 신들이 인간의 행동을 내려다 봤다면 모두 광대같아 웃었을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생각이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 삶의 의미가 함께 포장된 광대를 수집하도록 심리적 동기를 부여한 듯 싶었다.

관찰과 수집은 몇 십 만년 동안 인류가 살기위해 선택한 본능적 생활습관이다. 그 유전자들이 아직도 우리 몸 속에 남아있어 사람들은 즐거움과 흥미 그리고 짜릿한 맛을 주는 활동을 보기 원한다. 또한 그런 볼거리 물건들을 소유하려고 애쓴다.

어린 사내애는 보통 운동경기, 전쟁놀이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아 야구선수 카드, 권총, 전차, 소방차 등을 구해서 모은다. 소녀는 엄마와 부엌에서 요리하기 좋아 하고, 인형, 동화책, 바느질 소품 등을 쌓아 놓는다. 남녀 성인 역시 각자의 성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선호하고, 우표, 포도주 병마개, 오래된 퀴퀴한 물건 등 뭐든지 수집하여 보고 즐긴다.

광대는 원래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쓰고 우스꽝스런 몸짓으로 여러가지 재주를 부려 사람들을 웃기는 일종의 곡예사를 뜻했다. 짓은 화장에 촌스런 옷을 걸친 모습은 예술적 면도 있지만 폭력과 위협의 상징도 나타낸다.

16세기 서양에서 왕이나 귀족들이 궁정광대를 고용하여 이상한 표정과 품격없는 몸짓으로 세상을 풍자하고 웃음을 선사하여 초청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때도 있다. 권력유지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다 19세기에 이르러 광대는 코미디언으로 승격된다. 수십개의 표정을 고무 얼굴처럼 마음대로 만들고, 알아듣기 힘든 혀꼬부라진 소리로 소나기갈

새 관찰과 광대수집

이 쏟아내는 만능재주꾼으로 라디오, 텔레비, 서커스 공연에 출연한 직업 연예인으로 변신한다.

나는 형겍으로 된 광대보다 주로 포르셀린(Porcelain) 광대를 주어 모았다. 포르셀린 광대는 섭씨 1000도가 넘는 화로에서 구워낸 반투명 유리 형태의 도자기이다. 그 중 제일 좋아하는 것을 책장 선반위에 올려 놓았다. 30센티 넘는 키에 15센티 넓이의 큰 에멜 켈리(Emmel-Kelly) 광대다. 에멜 켈리는 실제 인물로 1930년대에 활동한 미국 서커스 곡예사로 대공황시절에 짓밟히고 찌들은 떠돌이 일꾼들의 설움과 분투를 당시 미국인의 삶과 연결시킨 연기자다. 그의 아이디어가 일 자리를 구하려고 뉴욕 부둣가에서 하루 종일 서성거리던 지치고 힘든 윌리(Wearly Willie)의 삶을 형상화한 에멜 켈리 광대가 나온 배경이다.

광대를 대하는 사람의 감정은 복잡하다. 어떤 사람들은 광대에게 강렬하고 지속적인 성적 끌림, 어떤이는 과장된 화장과 분장에 두려움과 위협을 느껴 피하려 한다. 한편 자신이 광대가 되고 싶은 사람도 꽤 있다. 그들은 보통 행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타인을 웃기려고 인간 힘을 쓴다. 터무니 없는 외설적이고 정상치를 벗어난 언행으로 흥을 돋구어 관중을 기쁘게 만들어 준다. 아마 어렸을 적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해소해 보려는 심리적 기전이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울음이 곧 터질 것 같은 찡그린 표정, 빨간 코, 처진 눈썹, 검게 탄 피부, 턱수염과 콧수염이 합쳐진 검고 둥근 털이 반쯤 열린 입주위를 싸고 있는 얼굴이다. 몸통은 험령한 바지에 낚은 구두를 신고 일감을 달라며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은 기다림에 지친 하루 품팔이 그대로다(에멜켈리 광대 사진 참조).



광대를 향한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 “내가 웃고 있으나, 모두 거짓이겠조. 눈가에 슬픔이 젖어있는 내 이름은 광대.” 탈을 쓰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채 속 마음을 드러내는 광대의 위장된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은 진화적으로 태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주어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극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소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눈길 맞추기다. 눈길을 맞춰 광대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자신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다른 생각을 가진 제 3자로서의 자기 타인화가 필요하다. 자기 편향에 기울어진 자기중심적 개념을 벗어나 자기를 객관화하는 사고패턴이다. 심리적으로 메타인지 과정이고, 뇌과학적으로는 자극에 반응(Reactive)하는 변연계의 편도체나 시상하부가 아닌 자극에 책임지고 반응하는(Responsive) 대뇌 피질의 전전두엽 기능이다.

나이 들며 선반위의 에멜켈리 광대를 바라보는 횡수가 늘어났다. 새 관찰하고 광대를 수집하면서 나의 메타인지와 전전두엽은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높아진 메타인지 능력과 전전두엽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강화하고 훈련하는 마음자세를 가지려 한다.

멋진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백옥자 음대 71입 ♥ 김경숙 식품영양학과 70입
원정윤 농대 89입 ♥ 이만택 의대 52입 ♥ 조무상 법학과 70입 ♥ 한귀희 회화과 68입

서울대에

천원의 식사는 학생들이 한끼 천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신의



천원의 식사에 참여하신 모든 기부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너 월에 기록합니다

이름을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간단 참여신청서를 찍어 ☎ 213-435-1974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새겨



간단 참여 신청서

저 성함 은(는)

매월 기부액 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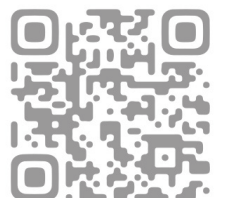
천원의 식사 후원에 참여합니다 ♥

휴대폰 번호

학과 년 입학

이 특별한 벽에 기부자님의 이름과 함께 나눔의 뜻이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 회칙 개정 위원회 설치키로

46대 뉴욕 동창회 첫 상임 이사회 개최

각 단과대 회장으로 구성된 뉴욕 동창회 상임 이사회(이사장 권정덕)가 지난 9월 17일 저녁 6시에 뉴저지 한상 식당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김정필 뉴욕동창회 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난 8월 22일 가졌던 야유회 결산 보고와 46대 동창회 사업 계획 발표, 10월 12일 장학기금 모금 추계 골프대회 진행 상황 점검 및 11월 7일 80학번 90학번과의 “만남의 광장” 행사에 대한 토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차기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데 기존의 각 단

과대 회장이 돌아가며 뉴욕 동창회 회장을 맡았던 관례도 좋았지만,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칙을 개정하자는 참석 이사 다수 의견에 따라, 기존 회칙에 의거하여 회장의 주도하에 ‘회칙 개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위원회 구성은 회장과 이사장, 법대 회장 등이 포함한 홀수(5인) 위원으로 선임한 뒤, 개정위원회가 결정한 기본안이 나오면 상임 이사회를 거쳐 정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취재=이영주(농생대 83)**



뉴욕 동창회 상임 이사회에 참석한 각 단과대 회장들. (왼쪽부터 시계순으로) 우규환(사범대), 이진구(농대), 조상근(법대), 김정필(뉴욕동창회 회장), 임창우(사회대), 윤자영(음대), 연영재(공대), 윤선구(치대), 한민우(의대) 회장과 권정덕 뉴욕동창회 이사장.

조경희 동문, 영문판 한국요리 책 출간 영양사 경험에 화가로 그린 작품 담아

조경희(가정대 72) 동문이 영문판 한국요리 책을 출간했다. 평범한 한식 요리를 소개한 책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영양사이자 화가인 저자의 작품이 담긴 조금 특별한 요리책이다.

평소 친구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조 동문은 영양사로 오랜 경험을 가졌다. 저자는 남편(신규천 사회과 학대 73)과 함께 미국에 와, 영양사 인턴십 공부를 하던 중에 뒤늦게 화가의 재능을 깨닫고 지난 15년 동안 화가로서 제2의 삶을 살았다.

그는 머리말에서 “한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한식을 요리해보라”고 제시한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한식 요리책으로, 이 책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거라 기대된다. 200가지의 한식 요리법 중에는 반찬과 밥, 죽, 국수, 국과 찌개, 김치, 피클에 이어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조경희 동문의 작품 앞에서 출간한 한국 요리 책을 선보이고 있다.

‘흔적을 남기며’ 김광현 동문 회고전

도록 출판 기념회도 겸해

서울대 등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한편 한국 산업디자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김광현 동문(미대 57)의 회고전 및 도록(圖錄) 출판기념회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뉴저지 해켄색 리버사이드 갤러리에서 있었다. 출판 기념회를 겸한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에는 동문과 지인, 축하객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김 동문은 회고전 주제인 ‘흔적을 남기며’(Leaving Traces)를 통해, 70년대부터 제작한 대표적인 그래픽 디자인 작품을 소개하였다. 또한 지난 40여년간 몸담아왔던 대학에서 정년 퇴직 후, 어린 시절부터 꿈을 품고 작업해 온 유화, 아크릴화 등 70여 점, 각종 일러스트레이션 및 기업 심볼 디자인 20여점 등 총 100여 점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도록에는 우리말과 영어로 쓴 미술사 중심 에세이와 수상작 14편도 같이 실렸다.

김광현 동문은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패키지 디자인(Package Design) 석사를 하고 한양대 응용미술학과 교수 및 학장, 계명대 미술대학 교수 및 학장을 역임하며 홍익대 이화여대



작품은 Circle with Color(원형의 색조), Oil, 24x30 in, 2023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7대 이상강 회장과 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LA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일상 생활에서 Chat GPT 활용하기, 같이 해봐요”

2015 · 2016 후배 학번들이 선배들에게 Chat GPT 활용법 실습시키며 쉽게 설명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정세근 · 자연대 82)에서는 00년 학번 이상의 젊은 동문들의 모임인 ‘샤로수팀’을 주축으로 Chat GPT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8월 10일(토) 오후 12시 페어팩스 애난데일에 위치한 설악가든에서 44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움과 친교를 나누는 훈훈한 시간이었다.

74학번 이전 학번 모임인 ‘마로니에 팀’의 선배님들을 주 대상으로, ‘같이 해봐요! 일상 생활에서 Chat GPT 쓰는 법’이란 친근한 주제로 요즘 핫이슈인 Chat GPT에 관한 활용 방안에 관한 워크숍을 열었다.

세미나 강사로는 손민지(환경대학원 2016졸업) 동문과 김희범(건축대학원 2015졸업) 동문이 수고했으며, 김부근(워싱턴D.C. 동창회장 역임, 의대 52) 동문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이 배움의

열정으로 참가해 자리를 빛내 주셨다. Chat GPT의 작동 방식을 쉽게 설명하는 시간과 함께, Chat GPT에서 검색하는 방법인 prompt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Chat GPT를 일상 생활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들을 다루기 위해 각자 노트북이나 스마트 폰을 지참할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워크숍 진행 순서는 (1) Chat GPT의 배경 및 작동 방식 (2) Chat GPT와 기존 검색엔진의 차이 (3) 일상 생활에서의 Chat GPT의 활용 방안 그리고 Chat GPT로 편지 쓰기, Chat GPT로 식단 짜기, Chat GPT로 여행 계획하기 등으로 구성했다.

이날 참석하신 여러 동문들은 실습을 통하여 Chat GPT와 대화 형식으로 이메일을 쓰는 연습을 하면서 실제로 인공지능과 대화 형식의 질문을 통하여

필요한 결과를 얻어내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거대한 변화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선배 동문님들을 위하여 젊은 동문들이 마련한 자리를 통하여 정을 나누며 기쁜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세대가 다른 후배들의

최신 테크놀로지 입문 과정 강의를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따라해 보시는 고령의 선배님들의 배움의 자세는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었다. 유익하고 알찬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샤로수 팀과 동문회에도 감사의 표시를 전한다.

취재= 한정희 편집위원(미대81)



선배 동문들이 2000년대 학번 젊은 후배들에게서 Chat GPT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직접 실습을 통해 활용 방법을 배우고 있다.



워싱턴DC 바둑 동호회 동문들. 왼쪽부터 진창건(의대 57), 이신규(기계59), 최종태(전자69), 정종욱(정치59), 정세근(계통82), 박상근(법대75), 김기봉(기계63), 고영희(의대57), 오인환(천문63) 동문.



워싱턴DC 동창회 바둑 동호회가 개최한 ‘한가위 맞이 교포 바둑대회’에서 출전자들이 실력을 겨루고 있다.

바둑 동호회 주최 ‘한가위 맞이 교포 바둑 대회’

교민사회 돌며 후원 받고 출전자 섭외 총 20명 참여, 상금과 트로피도 수여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정세근 · 자연대 82) 산하 바둑 동호회에서는 ‘한가위 맞이 교포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9월14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버지니아 Fairfax에 위치한 한미과학협력센터 3층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인원은 A조(아마 1단 이상) 10명, B조(아마 1급 이상) 10명, 총 20명이었다. 경기는 패자 부활전(Modified double elimination: 초기2번 지면 탈락) 방식이었다. 돌은 흙, 짝으로 자체 팀에서 가리

며, 기력에 따른 접바둑 방식으로 호선은 흑이 백에게 6호 반을 공제한다. 참가비는 20불, 상금으로는 각 조 우승자에게 현금200불씩과 대형 트로피, 각 조 준우승자에게 현금 100불씩과 중형 트로피를 그리고 제비 뽑기로 7번 배정자 두분에게 페루산 양주 한 병씩이 주어졌다.

이번 대회를 위해 바둑 동호회 총무 정용운(농대81) 동문은 교민 사회를 돌며 후원을 받고, 출전자 섭외를 하는 등 많은 수고를 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워싱턴D.C 동창회

의 바둑동호회(회장 박상근 · 법대75)는 애난데일 소재의 문박합동법률사무소에서 매달 둘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동문들이 모여서 바둑을 두며 친선을 나누고 있다.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바둑 문화를 알리며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워싱턴 디씨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바둑 대회를 갖게 되었다.

취재= 한정희 편집위원(미대81)



워싱턴 DC 동창회 바둑 동호회가 교포를 대상으로 바둑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아마 5단인 초등학생 양건열군도 참가했다.

시카고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회장 조규승, 문리대 72)는 지난 8월 31일 호프만 에스테이츠 소재 힐데일 G.C.에서 2024 추계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모두 13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서 그로스 챔피언은 김훈태 동문(사회대 84), 2위는 정성일 동문(차기회장, 공대 86)이 각각 차지했다. 네트 부문 1위와 2위는 서상현 동문(의대 65)과 홍청일(약대 57) 동문이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근접상은 이태호 동문(공대 87)과 한국에 거주하면서 시카고를 방문 중인 김성자 동문(사대 71)이, 장타상은 이준수동문(공대 76)과 노재원동문(인문대 82)이 받았다. 골프 대회 시작 전 참가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글=노재원(인문대 82)
사진=소진문(치대 58)

남가주총동창회 가족의 밤 행사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임춘택)의 연례 할리우드보울 가족의 밤 행사가 지난 8월 29일 할리웃보울 피크닉 에어리어에서 32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참석자들은 동창회가 마련한 식사와 디저트를 즐기고 이날 할리웃보울 공연장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열린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LA필하모닉의 연주회를 단체 관람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참석한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가주 동문합창단 여름밤 음악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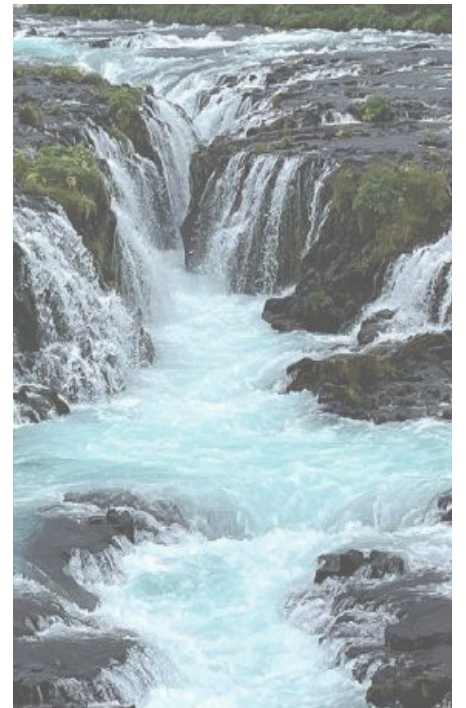
서울대 남가주 동문합창단은 제 8회 정기 공연을 지난 8월24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소재 콜번스쿨 지퍼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남가주 총동창회와 미주동창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김동석 동문이 항병기류 가야금 산조 순서를 비롯해 합창, 독창, 이중창, 앙상블, 재즈 앙상블 등 다양한 음악이 연주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동문 솔리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을 마친 동문들이 인사하고 있다.

유호 작가 LA 사진전 성황



한국의 유명 사진작가 유호 계원예술대학 겸임교수의 전시회가 지난 8월 남가주 LA작가의 집에서 열렸다. 유호 작가는 서울대 교수를 지냈고 난해한 추상미술을 서정에 담은 한국 추상화단의 대가 고 유경채 화가의 손자이자 조각가 서울대학원 동문인 조각가 유원씨의 아들로 이번 전시회에 '황야'를 주제로 뉴멕시코주 화이트 샌드 등지에서 촬영한 사진 50여점을 전시했다.

전시장을 찾은 서울대 동문들이 그의 전시회를 축하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아이슬란드는 어디를 가도 화산지대인데다 빙하가 많아 곳곳에 강과 폭포가 걸쳐 있다. 황금폭포로 알려진 굴포스 폭포에 영롱한 무지개가 걸려 있다. 오른쪽 사진은 파란 물결이 인상적인 블루 폭포. 하기환 회장 제공

하기환 동문(공대 66) 가족여행 - 아이슬란드와 발틱 3국을 가다<상>

화산 · 폭포 · 빙하의 나라 아이슬란드

한 수레의 책에서 얻는 삶의 지식보다, 여행에서 얻는 지혜가 크다는 말에 나는 동의한다. 그동안 여행은 내 삶의 일부였다. 바쁘게 LA에서 살고 있는 큰딸도 그런 DNA를 물려받았는지 여행마니아라 할 수 있다. 튀르키예 여행도 함께 했었는데, 이번엔 아직 가보지 않은 아이슬란드와 발틱 3국, 그곳을 돌아보자고 큰딸 부부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서 손녀 두 명까지 모두 5명이 여행을 떠났다. 누님이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체코까지 18박19일 일정으로 북유럽을 돌아본 여정과 소감을 미주 동문들과 나누고자 한다.

레이카비크와 블루라군

LA에서는 아이슬란드 직항편이 없어 뉴욕의 JFK 비행장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오후 11시 50분 비행기로 바뀌었다. 밤새워 난 비행기는, 오전 9시30분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비크 케플라비크공항에 도착했다. 예약한 렌터카를 찾아 공항에서 도심의 숙소로 가는 길에 유명관광지 블루라군(Blue Lagoon)으로 먼저 차를 몰았다. 시설이 아주 잘 된 블루라군은 지열 온천으로, 거대한 호수 형태의 스파라 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 땅 자체가 화산지대. 뜨거운 물이 곳곳에서 솟아오른다. 지열발전이 최적의 입지다. 전기 발전에 사용한 온천물을 이곳 블루라군에 공급해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었다. 썩먹고 알 먹는 셈이다.

수도 레이카비크 위도는 북위 65°. 북극권 바로 아래에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수도라 불린다. 우리가 도착한 레이카비크는 예쁜 지붕 색깔이 돋보이는 작은 도시다. 여름엔 백

야현상도 있고 북극권이기에 날씨가 고르지 못하다. 그러나, 인구 40만 정도의 이 나라에서는 가장 큰 도시.

우리는 에어비엔비(Airbnb)를 통해 예약한 아파트에 여장을 풀고 시내 관광에 나섰다.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인들은 자신들의 공통조상을 바이킹으로 믿고 있다. 그

다 조금 큰 102,775km²로 땅 크기로는 108위이니 한국 바로 위쪽에 자리한다.

교회 앞 광장에는 탐험가 레이프 에릭손의 동상이 보인다. 이 동상은 알팅그(Althingi) 창립 1,000주년을 기념해 1930년에 미국에서 기증한 것이다. 930년경 만들어진 알팅그는 아이슬

지열 · 수력발전으로 청정에너지 넘쳐나 스파형태의 지열온천 ‘블루라군’은 압권 게이시르 간헐천 · 굴포스 · 블루폭포 장관 폭포 안쪽에서 물줄기 보는 색다른 경험

들의 조상인 바이킹 역사를 담고 있는 국립박물관이 보인다. 레이카비크 시내 어디서나 눈길을 끄는 할림스키르카(Hallgrímskirkja)교회의 첨탑도 볼 수 있다.

레이프 에릭손을 아시는가?

할림스키르카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바닷가엔 스테인리스로 만든 배 형상의 조각이 보인다. 교회 건물 디자인이 독특하다. 앞으로 방문할 스바르티포스 폭포의 주상절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다. 주상절리는 화산의 분화로 생긴 육각형 바위인데, LA 근교 데블스 포스트 파일드 세계적 규모를 자랑한다. 이 교회는 높이가 74.5m로 아이슬란드에서 2번째로 높은 건물.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내를 둘러보는 전망대에 오를 수 있다. 한국의 면적은 100,449km²로 땅 크기 순위는 세계 109위. 아이슬란드 면적은 한국보

란드의 입법부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로 불린다. 동상으로 기리는 탐험가 레이프 에릭손. 그는 북미대륙에 도착한 최초의 유럽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게 아니라는 말. 우리는 콜럼버스로 알고 있으나, 그보다 거의 400년 전 에릭손이 먼저 발견했다는 것. 동상에 얽힌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 여행 재미 중 하나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도 있었다.

저녁을 포스트하우스라는 푸드코트에서 했는데 반가운 게 보인다. 진열된 주류 중에 한국 소주를 발견했다. 북유럽 먼 나라에서 소주를 만나다니, 참 한국의 위상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정에너지가 넘치는 나라

아이슬란드에는 ‘골든서클’이라 불리는 관광루트가 있다. 우리는 섬을 시

계방향 반대로 돌기로 했다. 싱벨리어 국립공원(Thingvellir National Park)과 게이시르(Geysir) 간헐천 지대, 굴포스 3개의 관광지를 관통하는 코스. 날씨는 예상대로 쌀쌀했고 비도 오락가락했다. 싱벨리어국립공원은 아이슬란드에 있는 세 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

이곳에서 게이시르라 불리는 지열계곡과 굴포스 폭포를 만날 수 있다. 옥사라포스(Öxarárfoss)는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폭포였는데 물줄기가 아주 거셌다. 이 폭포는 북미와 유라시아 땅덩어리가 마주치는 알마나그야 협곡에 존재한다. 여기서 만나며 헤어지는 두 대륙 협곡 지각판은 매년 2cm씩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 블루폭포는 이름대로 파란색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게이시르는 옐로스톤처럼 간헐천을 말한다. 세계 4대 간헐천이라는 이곳에도 열수와 수증기, 그리고 가스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분출하는 온천이 많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간헐천으로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보다 규모가 작았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굴포스(Gullfoss)폭포. 아이슬란드어로 굴포스는 금빛폭포, 황금폭포라는 뜻이다.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폭포로 3단 계단형으로 물이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대단하다. 이 땅에서 흔하게 만나는 포스(foss)는, 이들 말로 폭포. 굴포스의 위용은 엄청난 수량에서 알 수 있었다. 랑요쿨(Langjökull) 빙하에서 녹은 물이 흐비타(Hvita) 강을 이루며 흘러내려 굴포스를 만들고 있다.

굴포스는 두 군데로 나누어 접근할 수가 있다. 위쪽 탐방로를 걸어 전망대에서 폭포 상단부를 보고, 아래로 내



게이시르 간헐천. 오른쪽 사진은 아이슬란드 국조 퍼핀 서식지가 있는 웨스트만섬의 엘드펠 화산에서 포즈를 취한 큰 딸 가족.

잘 보존된 청정 자연 보는 재미 ‘쏠쏠’

려가 폭포 옆을 걷는다. 탐방로에서도 그 엄청난 수량과 지축을 울리는 굉음에 전율이 느껴진다. 마침 날씨가 좋아져서 폭포를 가로지른 영롱한 무지개가 뿜다. 아이슬란드에서 제일 사랑받는 폭포 중 하나라는 말이 과연 실감난다.

점심을 먹으러 프리드헤이마르(Fridheimar) 토마토 온실농장에 들렀다. 한국의 비닐하우스처럼 비닐로 만든 곳이 아니라 유리로 만든 영구적 거대한 온실농장이다. 이곳에서 직접 기른 농산물. 북극권 북위 63~67도에 걸쳐 있는 나라 아이슬란드. 겨울은 춥고 일조시간은 5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채소 생산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악조건. 그런데도 우리가 점심을 먹은 토마토농장이 존재한다.

토마토는 물론 오이, 버섯도 이 곳에서 재배한다. 지열발전 3할, 수력발전 7할이라는 청정에너지가 숨어 있었던 것. 아이슬란드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130개의 활화산을 연결한 7개의 지열발전소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지열과 온수가 공짜이니 당연히 전기료는 유럽 다른 나라보다 몇 배나 저렴하다. 그 에너지가 식물공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거대한 온실에는 토마토 밭이 있고, 위쪽에는 인공조명, 아래에는 온수 파이프가 보인다. 기후 제어 컴퓨터 시스템은 온실을, 지중해 기온과 환경으로 운전하고 있다. 그 덕분에 매일 1톤 정도 토마토를 수확한다. 토마토 밭 옆에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갓 만들어 낸 요리를 팔고 손님도 많았다. 우리도 청정에너지가 키워 낸 토마토 수프와 케이크를 기대했는데 자리가 없었다. 바에서 간단한 소시지로 점심을 대신했다. 식당 사업으로도 큰 수익을 내

고 있었다.

엘드펠 화산과 대피시스템

웨스트만섬(Westman Island) 제도로 가기 위해 페리를 탔다. 이 섬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퍼핀(Puffin) 서식지가 있다. 광대와 같은 귀여운 얼굴의 퍼핀은 고립된 섬이나 해안절벽 등에서 산다. 그리고 퍼핀처럼 귀여운 벨루가 고래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우리는 호텔에 여장을 풀 뒤 200미터 높이의 엘드펠 화산을 찾았다. 분화구까지 오르는 하이킹 코스 시작은 페리가 도착하는 마리나 반대편에 있었다. 원뿔형 분화구 산은 이제 관광명소가 되어 걸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엘드펠은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화산이다.

1973년 1월 21일, 섬 주민들은 몰랐지만 본토의 지진관측소에서 흔들림을 감지했다. 곧이어 헤이마에이 마을 중심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균열은 300미터 길이에서 2km 이상으로 넓어졌다. 그리고 밤하늘로 최대 150미터(492피트) 높이까지 용암 분수를 쏟아 올리기 시작했다. 화산의 나라 아이슬란드는 대피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다. 폭발 조짐을 발견한 지 6시간 안에, 5300여 명 전 주민들을 본토로 대피시켰다. 이 거대한 화산폭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 하지만 400채의 건물이 화산재에 묻히고 농장은 사라졌고 모든 가족은 죽었다.

이런 엘드펠이 관광명소가 된 것이다. 식어버린 분화구는 평평한 잔디로 덮여 있고 정상에 오르자 섬과 본토가 한 눈에 들어온다. 지구의 엄청난 에



하기환 동문(가운데)이 최근 큰 딸 가족과 아이슬란드와 발틱 3국까지 18박19일 일정의 여행을 했다.

포관광이 주 테마라고 불리도 무방할 것이다. 이 폭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물줄기 뒤쪽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점. 폭포 뒤쪽 절벽에는 넓은 동굴이 있다. 그곳으로 이어지는 바위와 오솔길이 있어, 여름에는 동굴로 갈 기회가 된다. 물 때문에 바위가 미끄럽고 안개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동굴에서는 방수가 잘 되는 옷을 입든지 흠뻑 젖을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

동굴에 다가갈수록 폭포 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커졌다. 폭포 물줄기가 튀어 폭우가 쏟아지는 느낌이었다. 폭포의 뒤쪽에 도착해 폭포 앞을 보니 비현실적인 풍경이다. 동굴 속엔 폭우가 오는 분위기인데 폭포 물줄기 밖의 모습은 햇살이 쨍쨍한 평화스러운 풍경. 폭포 안쪽으로 들어와 물줄기 밖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색다른 경험이었다. 셀야란드포스 관광을 끝낸 방문객들은 북쪽으로 이동해서 계곡 절벽 사이에 숨어 있는 글뤼프라부이(Gljúfrabúi) 폭포를 볼 수 있다. 계곡 속으로 들어서야 폭포를 볼 수 있기에 숨겨진 보석으로도 알려져 있다.

여행은 자연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먹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운 일. 이 나라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식당같은 편의시설이 귀하다. 그 대신 푸드트럭처럼 이동식 식당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 미아의 컨트리 밴(Mia & Country Van) 소문은 들어 알고 있었다. 역시 푸드트럭이고 차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손님이 많았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이슬란드 대표음식 ‘피쉬 앤 칩스’와 갈비요리를 시켰다.

너지를 품은 땅과 바다는 평화롭기만 했다. 이 섬 화산의 역사를 기록한 자연사 엘드헤이마르(Eldheimar) 박물관도 있다. 항구 옆 바위섬을 사다리모양으로 오르는 카파른 코스가 있었는데 나는 포기했지만, 아이들은 신나는 모양이었다.

폭포 뒤쪽을 가다

다음 날 우리는 페리를 타고 본 섬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유명한 셀야란드포스(Seljalandsfoss)를 찾았다. 포스(foss)란 말은 폭포(Water fall)를 말한다. 아이슬란드 관광은 포스 즉, 폭

한반도에 전면전 발생하면 중국은 참전할 것인가



이채진 (문리대 55)
클레어몬트 맥키나 대학
정치학 명예교수 및 석학교수

남북대립의 전개 과정

한반도에서 남북관계는 지난 6년 동안 천양지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놀랄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2017-2022)는 이상주의적인 “햇볕 정책”을 계승하여 평화와 번영을 표방하고 북한과는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한 해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차례 만나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대립의 완화를 위한 군사 합의를 채택했다. 남북은 평화적 공존과 상부상조를 약속하고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극진한 대우를 받았고 군중 앞에서 연설도 했으며 김정은의 안내로 백두산 천지를 구경하였다. 문화, 경제, 학술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시작되었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바야흐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대로가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철저한 현실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문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을 북한의 교활한 술수에 사기당한 환상에 불과했다고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과거에 서명한 남북 공동 성명과 군사합의 협정의 실효성을 불신했다. 2024년 8월 15일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서 윤 대통령은 강경한 대북 정책을 선언하였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 한국정부가 “동토의 왕국”과 우호적인 대화를 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확대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여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이 더 이상 같은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적대적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악취나는

남북 대립과 중국의 역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선택

오물 풍선을 서울까지 날려 보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한국도 군사경계선 지역에서 대북 선전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윤 정부는 북한 핵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합동 방위 연습을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혹은 핵우산(nuclear umbrella)에 의존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워싱턴 선언에 서명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상의하기 위한 협의기구(NCG)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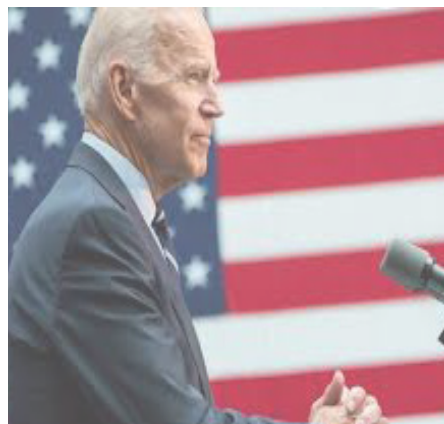
반면 김정은과 푸틴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상호 방위조약에 서명하였고 만일 북한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러시아는 유

물리학 교수는 북한은 남침할 준비를 2023년에 이미 완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대규모 남침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나는 판단하지만 오산이나 우발적으로 소규모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중국정책의 방향

앞으로 남북의 대립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중국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한반도의 현상 유지와 세력 균형을 선호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건국 이래 국교를



남북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남한, 북한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국제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엔 현장 51조와 자국 헌법에 따라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했다(제4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전략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위험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러조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옹호할 뿐만이 아니고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과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탄하였다. Robert Carlin 전 미국 국무부 북한 분석관과 Sigfried Hecker 스탠포드 대학교 핵

유지하고 있는 우방, 공산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동지, 6.25 전쟁에서 함께 싸운 혈맹,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유일한 동맹, 주한미군과 한국 군대의 움직임을 막아 줄 수 있는 완충지대, 불가분의 경제 관계를 갖고 있는 교역국,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웃 나라이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 회담을 전후하여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 세차례나 만나 긴밀히 협의하였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갈때 중국 비행기를 제공해 주었다.

2019년 1월 시진핑은 김정은을 북경에 초청하여 그의 35세 생일을 축하하는 파격적인 연회를 베풀었다. 그해 6월 시진핑은 평양을 방문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양국의 대를 이은 협력 관계를 재확인 했으며 “조중우호탑”에 헌화했다. 무엇보다도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했을 것이다.

중국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십여년만에 처음있는 중요한 행사였다. 코로나로 봉쇄되었던 북중 국경이 점차 열리게 되면 변경 무역도 재개되고 위축되어 있는 북한의 장마당도 활기를 찾을 것이다.

중국을 김정은이 러시아를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발언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분야에서 너무 밀착하는 것을 경계할 수도 있지만 시진핑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9.9절”을 맞아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어 북한과 장기적 각도에서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1992년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한반도에서 균형 외교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양국의 무역은 급격히 성장하여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고 양국은 자유무역 협정에 합의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국민으로 방한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중국과 한국이 함께 일본에 대항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8월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기념일 열병식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수반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하여 시진핑과의 특별한 우정을 과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는 축복된 위치에 있다고 자랑했었다. 그 당시 한국에 있는 한 평론가는 중국의 북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여 북한을 완충지대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어도 중국은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전술적으로는 변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목적은 변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2016년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사드(THAAD) 배치를 허용하자 격노하여 경제와 예술 분야 등에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날로 성장하는 한국의 경제력, 국방력,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은 점차적으로 제재 정책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국제회의 도중 잠시 만

동북아 평화 위한 남·북·미·중 4자 회담 모색해야

나 한중관계, 남북관계 등을 논의하고 상호방문을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은 2024년 5월 중국의 리창 총리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서울로 초청하여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38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민감한 남북 대립과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만일 남북 대립이 악화되어 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 중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주은래 총리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7월 북경에서 서명한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제2조를 알고 있다.

만일 북한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중국은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즉각적으로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약속했다. 이 조항은 북러조약 제4조와 유사하지만 절차상의 조건은 없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중국 학자들에게 “제2조는 아직도 유효한가”라고 질문하면 대다수는 이미 “공동화되었다”(효력을 상실했다)라고 대답하지만 소수의 학자들은

조약이 폐기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에 전면 전쟁이 발생하면 중국이 제2조를 발동하여 6.25 전쟁 당시와 같이 수십만의 군대를 참전시키기 보다는 당사 국가들이 신속한 휴전을 수락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동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파괴력이 너무도 극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군사 동맹은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면 중국은 남북의 대립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4자회담(남북, 미국, 중국)이나 러시아와 일본을 추가한 6자회담을 재개하여 포괄적인 합의를 유도하고자 노력할 수도 있다. 이것이 실행되려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신냉전”이 완화되고 우크라이나에 휴전이 성사되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 다시 등장할 수가 있어야 한다.

남북의 대립에 관한 강대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너무도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최소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가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선택

원칙적으로는 남북의 대립은 남북 정부 스스로가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차선의 방식으로 제3국의 도움을 모색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남북의 대립에 관련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미국은 한국의 국가 이익 (안보, 외교, 경제, 문화)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승리하면 기존의 한미일 공조 체제가 더욱 발전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김정은과 양자 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운명을 논의할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2 강국으로 부상하였고 한국과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였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참고하여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북한을 책임 있는 국가가 되도록 지원하며 남북의 대립이 완화되도록 노력하는 선의의 조력자 혹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머지않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서울에서나 북경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솔직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4자 회담이나 6자 회담의 개최 여부도 상의하기 바란다. 윤-시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한국은 미국 측과 충분히 조율하고 협의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외정책은 국내 정치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미국에서는 국경을 넘어 서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전통이 있다. 윤 대통령도 남북의 갈등을 슬기롭게 관리하고 평화 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양분된 국내 정치를 잘 대처하고 대외 정책에 관한 초당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볼 수도 있다.

미국 대선후보였던 Adlai Stevenson은 판문점을 시찰한 다음 “평화를 유지하기는 전쟁을 시작하기 보다는 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 뿐만 아니고 중국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공사 구분 못하는 정실 · 연고주의 그리고 눈치 문화



신응남
(농대 70)

제15대 미주동창회장

동경제대에서 한국학을 공부한, 다카하시 도루(1877-1967)의 조선인에 대한 역사적 고찰 논문을 기초로해 1921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인-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를 발행한다.

1919년 3.1 운동 후, 일본은 강압정책에서 사상적 문화지배로 변경하며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 식민사관을 조선인에게 주입할 목적으로 이책을 출판했다는 비판도 일부 있었다.

도루는 그의 저서에서 조선인의 특성으로 ‘사상의 종속성’, ‘당파성’, ‘형식주

조선인을 논하다 - 민족개조론

의’ & ‘공사구분을 못함’ 등을 들었다.

3.1 운동 후 많은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시대 유교사상, 부정부패의 폐습으로 인해 식민지 문명의 낙오자가 되었으니, 조선인 스스로가 민족성을 서둘러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예로, 춘원 이광수는 1922년 개벽지에 발표한 <민족개조론>에서 조선대에 형성된 허위, 나태, 이기심 등의 부정적인 민족성 개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세기가 지난후, 전남대의 강준만 교수는 2012년 펴낸 <한국인의 코드- 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에서 21세기에 와서도 부정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한 원인으로 공사구분을 못하게 하는 ‘정실주의, 연고주의 & 진영주의’를 지적한다.

그 누구도 그걸 감히 악(惡)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사는 인정의 실천 원리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

국가나 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법의 준수보다는, 사사로운 정에 기대어 산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는 그원리를 거름삼아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얼마전에 작고한 이어령 교수는 1962년 <흙속에 저 바람속에>에서 한국인의 ‘눈치 문화’를 논한다.

“눈치는 언제나 약자가 강자의 마음을 살피는 기미이며, 원리 원칙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부조리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지혜다.”

“죄의 유무를 논리적으로 따진다거나, 법의 원리 원칙을 내세운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다간 도리어 큰코 다친다. 그 조직에서 영원히 추방이라는 유배형을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 의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재빨리 눈치로 알아내는 일이다. 눈치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한다. 논리보다는 직관이, 이성보다는 기미를 파악하는 감성, 눈치가 우리에게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일본을 정탐하러 간 황윤길과 김성일이 반년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기껏 보고온 것이 도쿄토미 히데요시의 어진 눈 뿐이었다. 그야말로 눈치만 보고 온 것이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눈치’의 지혜는 주눅들지 않았다.

“눈치만 빠르면 절간에서도 새우젓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속담에 의존해 아직 까지도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작가 이어령은 탄식한다.

저 달을 보라고 하니,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르키는 손이 밍다 한다.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달리는 경주마에 채찍질 ... '동물 학대일까?'



이회백
(의대 61 · 시애틀)

내가 살던 알래스카 주기(state flag)는 푸른 하늘 바탕에 흰색의 북두칠성 그리고 노란색의 북극성으로 되어 있다. 주 꽃은 물망초 그리고 주 새는 들꿩으로 여름에는 알록달록한 보호색, 겨울에는 흰 눈빛으로 바뀌는 새다. 그리고 주를 대표하는 스포츠는 개썰매 경주(dog sledding)로 이 경기 중 가장 큰 경기가 소위 "아이디타로드(IDITAROD)"다.

알래스카 최대도시 앵커리지에서 와실라까지는 시범경주(ceremonial run)이고 본 경기는 다음날 와실라에서 출발해 서북쪽 러시아를 바라보는 해안가 놈(Nome)이라는 마을에 도착하는 1100 마일(1800 km)을 달리는 경주다.

이 경주는 1973년 3월 처음 시작되었는데 1925년 디프테리아가 놈이란 동네에 크게 퍼져 치료할 길이 없자 커티스 웰시란 의사가 디프테리아 항생 혈청을 보내달라고 주에 요청, 이 혈청을 중간 지점에 있는 인디안 마을 아이디타라드를 경유해 개썰매로 운반한 것을 기념해서 시작한 경기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와실라에는 눈이 적게 내려 2008년부터는 출발지를 월로우로 옮겼다.

이 IDITAROD 경기중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개를 잘 다루었나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 도중 개가 죽으면 부검을 해서 자연사가 아니고 개를 잘 못 취급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정되면 경기 자격을 종신 박탈하기까지 한다. 이들 개 중 제일 중요한 개가 앞장서는 "Lead Dog" 인데 이 선두 개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십 마리 어떤 때는 수백 마리를 길러 그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나머지 개는 어떻게 되느냐? IDITAROD를 다섯 번이나 우승한 수잔 부처같은 여걸은 원하지 않는 개는 다 판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그런 유명인이 되지 못한 개썰매 선수들의 개는 사겠다는 임자가 없어 개 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다. 그 많은 개를 먹여살리거나 아니면 저승으로 보내는 것이다. 길이다. 그러나 그들의 수입으로는 많은 개를 먹여 살릴 수가 없다.

일년 내내 훈련시켜 일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합인데 우승자의 상금이 5만불 밖에 안되며 이 수입, 저 수입 다 합쳐봐야 10만불도 될까말까다. 우승하지 못

우리는 다른 생명을 어떻게 다루는가

한 선수들의 수입은 말할 것도 없다. 과거 이것을 문제삼아 왈가왈부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개썰매 선수들은 입을 다물었는데 한 선수만이 사실대로 실토했다. 그러나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자기는 개고기를 허비하지 않고 자기 선수 개들의 사육용으로 쓰노라고 자랑(?)했다. 일천마일 이상 개를 뛰게 하는 경기 자체가 동물을 학대하는거라고 비난하는 동물애호협회조차 이렇게 술한 개가 죽어가는데는 꿀먹은 벙어리 모양 모른 채하고 있다.

무엇이 애호고 무엇이 학대냐고 정의

“사라드크마, 이 국 참 맛있어. 너도 한 공기 담어.” 샐러드를 담으며 자기는 국 안 먹는다기에 “왜?” “우리는 산 생명을 먹지 않아.” 엄숙하게 선언하는 그에게 “아니 채소는 생명이 아닌 말인가?” “식물은 감각이 없으니까 괜찮아,” “식물도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는 증거를 댈수 있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너는 그러면 감각이 있는 동물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말이지?” 고개를 끄덕 거리는 그에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차를 몰고 다니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알래스카 개썰매 경주 끝나면 팔리지 않는 개는 대개 도살돼 문화풍습 차이나 동물 학대냐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는 켄터키 더비를 TV에서 보고 있었다. 선두를 달리던 말이 마지막 판에 뒤따라 오는 말에게 따라 잡히게 되자 기수가 말 엉덩이를 사정없이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었다. 나는 같이 보던 미국인 간호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아니 그렇게 동물을 애호한다는 당신들이, 그것도 한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동물애호가들이 지켜보는데 저렇게 동물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을 보고도 고발은 커녕 항의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 이거 어떻게 된거요?” 아무도 대답 안하고 별 걸 다 꼬집는 놈이라는 표정을 짓고는 킬킬대고 웃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다. 하루는 인도 출신 안과의사와 식당에 들어가 clam chowder를 공기에 담으면서 말을 건넷다.

듯 눈알을 아래위로 굴리는 그에게 “너 운전하고 나서 네 스포츠카 앞 그릴 쳐다본적 있어?” 그제서야 무슨 소린지 알아들었다는 듯 “아 그건 달라. 일부터 죽이려고 한건 아니니까.” 자기 합리화 할건 다 갖추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 인도 친구의 생각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화제를 판데로 돌렸다. 아무것도 회생시키지 않고 그야말로 “깨끗이”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비단 이 인도의사 뿐일까? 개고기 안 먹으면 쇠고기 먹어야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안먹으면 채소 먹어야 살아 남는 게 우리 아닌가.

다른 동식물은 그렇다 치고 우리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가? 가장 심각하게 논의 되는 것이 임신 중절에 대한 견해다. 한쪽에선 임신중절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그 반대 입장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끊을 수가 있는가? 인간생명은 어떤 이유에서든 끊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선거때만 되면 이 문제가 중요 쟁점이 된다.

그러나 그런 미국이 소위 선진문명

국 중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아직도 사형제가 있지만 사실상 하지 않는 걸로 알고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인도 절대로 인간이 인간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믿는 나라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임신중절을 결사반대하는 사람일수록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같다.

하루는 이곳 한 의사친구에게 이에 대해 물었다. “그거야 태아는 아무 죄가 없고 사형수는 죄를 지었으니 다르지 않느냐”라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대개 이런 사람일수록 전쟁에 찬성이고 전쟁에 나가 죽고 죽는 것을 영웅시한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물었다. “그러면 범죄자는 그렇다 치고 전쟁은 어떻게. 전쟁터에 나온 자가 전부 범죄자는 아니지 않소. 나는 이쪽에 태어났고 저쪽은 반대측에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는데 임신중절 반대자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 방아쇠를 잡아당길 수가 있소? 아무도 해친 일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이분은 미국 군의관으로 한국 원주에 주둔했던 적도 있어 가끔 아리랑과 동해물과 백두산도 부르는 성격이 완만한 가톨릭 신자다. “그건 나도 대답 못하겠는데...”

나와 한때 같이 일했던 의사 중 아주 유별난 의사가 있었다. 그는 한달에 한번은 신문에 임신중절 반대에 대한 글을 쓴다.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는 혈투를 벌이는 그가 짐승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다. 아니 무관심이 아니라 대단한 수렵가다. 짐은 온통 자기가 쏜 죽인 짐승뿔과 가죽으로 장식되어 있고 사냥 갔다 오기만 하면 죽어넘어진 짐승과 같이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찍은 기념사진들을 가져와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임신중절 이야기가 길어졌다. 내가 임신중절 찬성자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임신중절 반대자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개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이곳 사람들이 다르듯 사고, 가치관, 문화풍습은 자라온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 뿐이다. 다른 환경은 다른 사고,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풍습을 가져온다. 자기 고유의 사고, 가치관 그리고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지키자는 것은 당연하고 또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의 사고, 가치관, 문화와 풍습을 자기의 영역을 넘어 남에게까지 강요할 때는 자기의 것이 남보다 월등하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극히 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강미자
(음대 성악과 62)

임윤찬, 두다멜, 베토벤의 ‘황제’

아직도 옛된 20살의 임윤찬은 정확히 1년전 할리우드보울 야외 연주장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모든 청중을 매혹시킨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할리우드보울에 찾아왔다. 오랫동안 최고 자리를 굳히고 있는 두다멜 지휘자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크고 운치 있는 야외음악당 할리우드보울에서 그 둘의 협주를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이곳 LA에 살고 있는 행운이 아니겠는가?

1년 만에 가히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우뚝 서 돌아온 임윤찬을 어떤 환대로 맞아야 하나? 1년 만에 이토록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 올려놓은 예술가가

또 있었는가? 지난 8월29일 밤 설레는 마음으로 청중들 틈에 숨을 죽이며 감상했다.

사실 나는 1988년 ‘88올림픽 기념 축하음악회’를 LA 뮤직센터(디즈니홀 전신)에서 피아니스트 한동일과 함께 공연한 바 있다. 그때 한동일은 베토벤 ‘황제’를 연주했고 나는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 중 한 곡과 한국 가곡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적이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베토벤 ‘황제’를 접하며 그 곡의 웅장함과 경쾌한 기교, 특히 2악장의 감미로움에 감탄한 기억이 남아 있다. 왜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연주하고 싶어 하는 피아노 협주곡이 ‘황제’ 인지를 알게 됐다. 그렇기에 임윤찬이 연주하는 ‘황제’를 얼마나 기대하며 기다렸던가.

이 곡의 특징은 1악장 시작부터 오케스트라와 협연 없이 단독으로 치고 나오는, 다른 협주곡에선 볼 수 없는 유일한 형식이 특징이다. 첫 악장 알레그로(Allegro) 카덴짜를 임윤찬은 활기차고 화려한 기교로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듯 일말의 빈틈없이 완벽하게 손가락

을 움직였다. 감탄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연습의 노력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테크닉 처리! 경쾌함과 기교와 웅장함의 극치를 느끼게 했다.

2악장 아다지오(Adagio)는 극도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로 마치 쇼팽



곡을 연상케 하는 슬픔으로 모든 관중들의 가슴을 몽클케 했으리라 생각된다. 나는 특히 2악장을 사랑하기에 임윤찬의 표정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커다란 야외 스크린에 비치는 얼굴 표정은 건반 위 손가락의 잔잔한 놀림과 함께 슬픔에 빠져 있는 듯 했다. 적당히 가름한 얼굴에 짙은 눈썹, 가끔 위를 쳐다보는 사색에 잠긴 눈매, 옆 선이 멋있

게 보이는 우뚝한 콧대, 숭 많고 곱슬기가 있는 눈을 덮을만큼 긴 앞머리 이번엔 반듯한 앞가르마마저 어울려 보이는 그의 외모는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을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곡의 특징은 슬픈 2악장에서 자연스레 3악장 론도 알레그로(Rondo Allegro)로 선율이 넘어간다는 점이다. 슬픈 2악장에서 자연스레 3악장 론도 알레그로로 선율이 이어 받아 폭발함을 제시하며 가장 밝고 활발한 정서를 느끼게 했다.

임윤찬의 연주는 이 모든 ‘황제’의 장점을 가장 잘 표현해줬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관중들의 넋을 사로잡은 임윤찬은 베토벤의 ‘황제’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연주했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우리 같은 2만 명의 박수 소리에 기대해 본 앵콜곡을 들을 수 있었다. 가을 분위기다운 바흐의 시칠리아노 곡으로 또 한 번 가슴을 적시고 돌아왔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트루 빌리버’ 동문 변호사는 없을까

“묻혀있는 증거들을 찾아내야 해.” 변호사의 지시에 인턴은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그러다가 저 친구가 진짜 범인 이란 물증이 드러나면 어떡해요.” 변호사가 통명스럽게 말을 받는다. “그가 살인을 저질렀는지는 오직 그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 죄가 없다는 걸 확신하지.”

지난 1989년 개봉된 법정 드라마 ‘트루 빌리버(True Believer)’의 하이라이트 대목이다. ‘트루 빌리버’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광신자를 일컫는 사회심리학 용어다.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등은 이른바 ‘트루 빌리버’가 일으킨 역사적 사건들이다.

영화에서 ‘트루 빌리버’는 변호사를 가리킨다. 맹목적으로 살인용의자의 죄없음을 믿는 변호사. 왜 그랬을까. 피의자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들먹여가며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영화는 그해 한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바로 이철수 사건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이다. 1973년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갱단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처형될 위기에 처했던 이철수. 그러나 토니 세라(Tony Serra)의 변론으로 10년만에 무죄로 풀려났다.

스탠퍼드와 UC버클리 법대 출신인 세라는 당시 공익변호사(pro bono)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다. 이철수뿐 아니라 흑인 과격단체 ‘블랙 팬더’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승소, 경찰과 FBI 등 법집행기관들엔 공적1호로 불려지다시피 했다.

세라 역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는 거의 문맹에 가까웠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들 다섯을 훌륭하게 키워 하버드와 예일, 스탠퍼드, 버클리 등 명문대학에 보냈다.

고액연봉과 출세의 길이 보장됐는데도 세라는 수도승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 양복은 10달러 짜리 중고품. 은행 계좌도 없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이 전 재산이다. 방 하나 짜리 허름한 아파트에서 수십년째 살고 있다. ‘빈곤서약’을 했다고 할까. 맨처음 이철수 구명운동에 나선 건 일

본계 커뮤니티다. 태평양 전쟁 때 적성국 시민으로 간주돼 수용소에 감금된 뼈아픈 과거가 이들을 움직였다. 캐롤 야마다 등 로스쿨 재학생들이 자기 일처럼 뛰었다. 이 사건은 아시아계가 처음으로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다.

야마다는 세라에 이런 말을 들려줬다. “이 땅에서 소수계는 별거벗긴 채 살아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세라는 영화에서 경찰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다. “당신들은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그런 따위엔 관심조차 없지. 차이나타운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니 진범을 잡을 생각은 안하고 아무 (동양계의) 목이나 가져오라고?”

공교롭게도 경찰이 쳐놓은 그물에 이철수가 걸려들었다. 마약에 폭력 전과까지 있어 그의 목에 살인범이란 딱지를 붙였다. 알리바이를 댔는데도.

장발에 히피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세라는 과격한 언어를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이철수의 무죄를 이끌어냈다.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쓴 채 하마터면 형장의 이슬이 될 뻔했던 이철수. 세라는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

님이 심술을 부렸나 봅니다. 인간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시련을 그에게 안겨줬어요.”

‘사형수’ 이철수가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난지 40년이 지났다. 이번엔 동문(양민·공대 77)의 아들 양용이 LA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목숨을 잃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경찰이 관련 프로토콜을 무시한채 총을 쏜 것이다.

지난 9월 17일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LA 시의회가 공청회를 열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경찰국(LAPD) 본부 앞에서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부모의 바람은 아들 양용의 목숨을 앗아간 경찰의 형사처벌과 LAPD의 공식 사과다. 이것이 정의라고 믿기 때문이다.

양용의 정의를 이끌어낸 변호사는 없을까. 남가주 한인사회도 이젠 한해 평균 100명이 넘는 변호사를 양산해 내고 있다. 동문 변호사들도 적지 않다. 이 가운데 과연 몇명이나 ‘트루 빌리버’를 자처할 수 있을지. 이미 은퇴한 토니 세라를 다시 소환해낼 수도 없고...

세계은행 신설 디지털전환 부총재된 김상부(경영 92) 동문 “세계인 90% 인터넷 가능하도록 하겠다”

정보통신부 근무 때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 “저개발국 인터넷 인프라 구축 역점돌 것”

최근 김상부 동문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은행(WB) 최고위급인 디지털전환 부총재에 선임됐다.

올해 신설된 디지털전환 부총재는 저개발 국가의 인터넷망 구축과 디지털 개발을 통해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일을 맡는다.

김 동문은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옛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 후 구글·LG유플러스 등 국내외 디지털 기업을 아우르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9월 3일 부임을 앞두고 미 워싱턴 근교에 자리를 잡은 김 동문을 8월 29일 온라인 화상으로 만났다. 취임 소감을 묻자 “정부에서 시작해 민간, 해외 기업까지 거쳐 다시 공공기관으로 돌아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돼 기쁘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인터넷망 구축 등 디지털화는 저개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수단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개발 국가들이 발전하는 데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많겠지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전 세계은행 총재로 부임한 아제이 방가(Ajay Banga)는 경제 개발에 디지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세계은행의

디지털 관련 부서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디지털전환 부총재직을 신설했다. 이후 풍부한 디지털 개발의 역사와 경험을 가진 한국 등을 방문해 책임자를 물색했고 민간 양쪽에서 경험이 풍부한 김 동문을 낙점한 것이다.

김 동문이 사무관 시절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맡은 업무가 ‘국가 정보화 사업’이었다. 우리나라 전역에 인터넷망을 도입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추진했다. 정부에서 정보화 기획 업무를 마무리한 후, 민간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보고 2013년 LG 경제연구원, 2019년 LG유플러스로 자리를 옮겨 신산업 개발, 국내외 파트너들과의 사업 제휴 등 전략 업무를 담당했다. 2019년에는 구글로 이직해 컨슈머 공공정책 총괄로 경험을 쌓았다.

공공 영역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초대 디지털전환 부총재로서 크게 3가지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가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다. 김 동문은 “전 세계 3분의 1인 27억명 정도가 여전히 인터넷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며 “인터넷망을 넓히는 일을 1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는 인터넷 활용도를 높이는 교육이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문자 등 언어에 대한 교육이 따라줘야 한다. 세 번째는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

지면 따라오는 보안,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해결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진정한 디지털 개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가 힘이고, 정보를 모르면 경제 활동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임기 동안 최소 90% 세계인이 원할 때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생각입니다.”

세계은행의 디지털전환 사업은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동문은 “한국은 풍부한 디지털 개발의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구축해온 전자정부, 디지털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개발 등의 노하우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필요한 자산”이라며 “세계은행의 본 사업이 한국 기업에 기회 내지는 최소 상담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질 것 같다”고 했다.

김 동문은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이동기, 정운찬 교수의 가르침이 큰 지점이 됐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합격 후 연수 들어가기 전까지 이동기 교수의 연구실 조교를 맡았다. 국제경영학을 강의했던 이동기 교수로부터 전략을 짜는 일과 해외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 배웠다. 정운찬 교수는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님은 개인의 안녕이 아니라 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지를 늘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 서울대는 어떤 의미일까. “제 인생의 첫 성공 사례죠. 서울대 입학은



어린 시절 가장 큰 성취감을 줬던 사건입니다. 그게 밑바탕이 돼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12시 취침, 6시 기상을 어겨본 적이 없다는 그는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한 조언에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 가두지 말고 큰 꿈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다 보면 개인 행복은 덩어리 따라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김남주 기자

서울대 진학, 학생 잠재력보다 어디 사느냐가 영향

한국은행 보고서 발표

강남 3구 고교 출신이 12%

서울과 비서울 지역 학생의 모교 진학에 ‘거주지역 효과’의 영향이 92%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화제다. 8월 27일 모교 국가미래전략원과 한국은행이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위권대 진학을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설명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서울대 입시에서 일반고 학생의 진학률의 지역별 격차에 주목했다. 2018년 모교 입학생 중 서울 출신 일반고 졸업생 비중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높았다. ‘강남 3구’(강남·서

초·송파) 출신 일반고생의 경우 모교 진학률의 1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 격차를 ‘학생의 잠재력’으로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학생의 잠재력을 추정하는 공식은 김세직(경제79-83) 모교 교수의 선행 연구에서 △부모 소득 분포 △부모 소득과 지능 간 상관관계 △부모 지능과 자녀 지능 간 상관관계를 이용해 학생의 잠재력(지능) 분포를 추정하는 방식을 참고했다.

이를 활용해 학생 잠재력을 기준으로 지역별 가상의 서울대 진학률을 산출하고 실제 진학률과 비교했다.

그 결과, 서울 지역은 비서울 지역과

달리 잠재력 기준 진학률 추정치와 실제 진학률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의 잠재력은 서울과 비서울 간 모교 진학률 격차의 약 8%만을 설명할 뿐, 나머지 92%는 잠재력 이외의 요인인 ‘거주지역 효과’로 분석됐다. 즉, 가난하지만 잠재력 높은 지방 학생보다 평범하고 부유한 서울 학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같은 서울 내에서 ‘강남 3구’와 서울대 진학률이 뚜렷이 높지 않은 익명의 구를 비교해봐도, 강남 3구의 잠재력 기준 모교 진학률은 익명 구의 1.3배에 불과했지만 실제 진학률은 8.2배 차이났다. 부모의 경제력과 학원 인프라 등 지역별 사교육 환경의 차이로 잠재력 있는 지역 인재를 놓치는 ‘잃어버린 인재’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같은 분석을 한 것은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불평등 심화가 집값 상승, 수도권 인구집중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2002년 정운찬 전 모교 총장이 제안한 ‘지역 할당제’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역차별 논란 등을 거쳐 모교는 지금의 지역균형 전형형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현재 서울대의 지역균형전형 등 일부 대학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이를 입학정원 대부분에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낙인효과가 적고, 대학이 신입생 선발기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 워싱턴주 -故고광선 (공대 57)
-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 조지아 - 주중광 (약대 60)
-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 뉴욕 - 조상근 (법대 69)

골드이사 (\$10,000이상)

-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 남가주 - 이홍표 (의대 58)
-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 남가주 - 하기환 (공대 66)
-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 뉴욕 - 오인석 (법대 58)
-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 미시간 - 박화화 (의대 52)
-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 필라델피아 - 손재욱 (가정 77)
-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 남가주 - 강재호 (상대 57)
-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 남가주 - 이종묘 (간호대 69)
-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 뉴욕 - 김현중 (공대 63)
-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 필라델피아 - 신익석 (공대 53)
-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 남가주
- 故노재성 (법대 58)
- 故서영석 (의대 55)
- 故오재인 (치대 33)
- 故윤낙승 (의대 60)
- 강신용 (사대 73)
- 곽용길 (문리대 59)
- 권기홍 (의대 60)
- 김광은 (음대 56)
- 김기형 (상대 75)
- 김대중 (의대 70)
- 김동훈 (의대 71)
- 김보연 (간호대 63)
- 김상찬 (문리 65)
- 김성호 (법대 64)
- 김수영 (사대 57)
- 김자성 (의대 79)

- 김재영 (농대 62)
- 김정빈 (공대 66)
- 나두섭 (의대 66)
- 류재풍 (법대 60)
- 박명근 (상대 63)
- 박용필 (문리대 66)
- 박원준 (공대 53)
- 박윤수 (문리대 48)
- 방명진 (공대 73)
- 백길영 (의대 58)
- 백만일 (공대 64)
- 서동영 (사대 60)
- 신건호 (법대 53)
- 신영찬 (의대 62)
- 심상은 (상대 54)
- 안병일 (의대 63)
- 오용오 (의대 66)
- 오홍조 (치대 56)
- 이근원 (공대 67)
- 이명선 (상대 58)
- 이성숙 (공대 56)
- 이세열 (사대 57)
- 이승훈 (상대 74)
- 이체진 (문리대 55)
- 이청광 (상대 61)
- 임낙균 (약대 64)
- 임용오 (의대 57)
- 전경배 (의대 69)
- 전희택 (의대 58)
- 정균희 (의대 64)
- 정동구 (공대 57)
- 정임현 (간호대 72)
- 정철룡 (의대 55)
- 제영혜 (가정대 71)
- 조용원 (문리대 66)
- 차민영 (의대 76)
- 차중환 (사대 54)
- 한효동 (공대 58)
- 홍성선 (약대 72)
- 홍종화 (약대 74)

뉴욕

- 故김광호 (문리대 62)

- 故한창섭 (문리대 57)
- 강에드워드 (사대 60)
- 고애자 (음대 57)
- 권영국 (상대 60)
- 김승호 (공대 71)
- 김영용 (치대 55)
- 김종률 (사대 51)
- 김한중 (의대 56)
- 김해암 (의대 52)
- 배정희 (사대 54)
- 서영숙 (간호대 67)
- 석창호 (의대 66)
- 손진태 (약대 67)
- 신응남 (농대 70)
- 윤종숙 (약대 66)
- 이강홍 (상대 60)
- 이기영 (농대 70)
- 이대영 (문리대 64)
- 이영재 (상대 58)
- 이재덕 (법대 60)
- 이재량 (상대 61)
- 이전구 (농대 60)
- 이준행 (공대 47)
- 이태호 (상대 58)
- 최수용 (상대 55)
- 최영태 (문리대 67)
- 최한용 (농대 58)
- 추재욱 (의대 57)
- 한태진 (의대 58)
-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 故고일석 (보건대 69)
- 故박경민 (의대 53)
- 김광수 (문리대 73)
- 고종성 (사대 75)
- 김문소 (수의대 61)
- 김용구 (공대 66)
- 오세경 (약대 61)
- 윤선홍 (치대 64)
- 이의인 (공대 68)
- 전신의 (문리대 57)
- 정정욱 (의대 60)
- 정태영 (문리대 71)

- 조만연 (상대 58)
-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 故방은호 (약대 43)
- 강연식 (사대 58)
- 공순옥 (간호대 66)
- 권기현 (사대 53)
- 민흥기 (문리대 61)
- 박평일 (농대 69)
- 서희열 (의대 57)
- 오인환 (문리대 63)
- 이내원 (사대 58)
- 이선구 (문리 65)
- 이윤주 (상대 63)
- 최재귀 (미대 63)
-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 故남상용 (공대 52)
- 故정태 (의대 57)
-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 박진영 (공대 66)
- 손석보 (공대 68)
- 윤정욱 (약대 50)
- 최경선 (농대 65)
- 한만섭 (공대 49)

시카고

- 강영국 (수의대 67)
- 심상구 (상대 63)
- 이재희 (치대 67)
- 장윤일 (공대 60)
- 조봉완 (법대 53)
- 최의필 (의대 53)
- 한재은 (의대 59)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04,000 (7/1/23 - 12/31/23 17대 1차 회기 6개월)

오레곤

- 김상순 (상대 67)
- 박희진 (농 78)
- 이은상 (상대 52)

샌디에고

- 임천빈 (문리대 61)

미네소타

- 김권식 (공대 61)
- 김태환 (의대 58)
- 남세현 (공대 67)
- 변우진 (인문대 81)
- 조형준 (문리대 62)

휴스턴

- 박진섭 (의대 67)

오하이오

- 김용현 (경원 66)
-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 故김영일 (공대 53)
- 이명자 (간호대 74)
- 이희백 (의대 55)
- 임헌민 (공대 84)

조지아

- 김용건 (문리대 48)
- 석호태 (공대 85)
-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 김중권 (의대 63)
- 임필순 (의대 54)

텍사스

- 박태우 (공대 64)
- 이광연 (공대 60)
-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리대 55)
- 김현영 (수의대 58)
- 서종민 (공대 64)
- 손재욱 (가정대 77)
- 신성식 (공대 56)
- 주기목 (수의대 68)

하틀랜드

- 김명자 (문리대 62)
- 김시근 (공대 72)
- 배규영 (사대 68)
- 오명순 (가정대 69)
-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3.7.1 - 2025.6.30) *2차 회기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남가주

- 강경수 (법 58)
- 강동순 (법 59)
- 강윤희 (간 46)
- 강재호 (상 81)
- 강창만 (의 58)
- 강춘자 (간 69)
- 강호석 (상 81)
- 고남규 (의 68)
- 고석규 (치 65)
- 권기상 (대 72)
- 권봉성 (문 64)
- 김경 (문 63)
- 김경수 (사 58)
- 김갑진 (문 62)
- 김동석 (음 64)
- 김영배 (미 61)
- 김경수 (치 54)
- 김정욱 (미 61)
- 김경자 (미 60)
- 김광은 (음 56)
- 김남영 (공 53)
- 김동산 (법 59)
- 김명숙 (농 58)
- 김명희 (간)
- 김문엽 (농 83)
- 김범수 (문 61)
- 김병완 (공 58)
- 김상찬 (문 65)
- 김석홍 (법 59)
- 김성호 (법 64)
- 김성환 (의 65)
- 김수향 (간 68)
- 김순걸 (법 54)
- 김순자 (치 57)
- 김영덕 (법 58)
- 김육경 (생 60)
- 김용주 (간 69)
- 김용채 (문 61)
- 김원탁 (공 65)
- 김일영 (의 65)
- 김자성 (의 79)
- 김재영 (농 62)
- 김정애 (간 69)
- 김정호 (농 59)
- 김종표 (법 58)
- 김준일 (공 62)
- 김창진 (공 77)
- 김태환 (문 78)
- 김태운 (법 53)
- 김택수 (의 57)
- 김학철 (의 55)
- 김혜숙 (미 68)
- 김흥욱 (문 60)
- 김희창 (공 64)
- 나두섭 (의 66)
- 나승욱 (문 59)
- 나용화 (생 79)
- 노명호 (공 61)
- 문경호 (문 59)
- 문병길 (문 61)
- 마동일 (의 57)
- 민일기 (약 69)
- 박명근 (상 63)
- 박민식 (수 65)
- 박부강 (사 64)
- 박상원 (대 20)
- 박원준 (공 53)
- 박용 (문 89)
- 박우선 (공 57)
- 박은숙 (미 62)
- 박은희 (미 68)
- 박인수 (농 64)
- 박인창 (농 65)
- 박일우 (의 70)
- 박임하 (치 56)
- 박자경 (생 60)
- 박종수 (수 58)
- 박찬호 (공 58)
- 박찬호 (농 63)
- 박한영 (치)
- 박혜란 (미 70)
- 박혜옥 (간 69)
- 박호현 (의 52)
- 박홍근 (공 64)
- 박희자 (음 68)
- 방명진 (공 73)
- 배동환 (공 65)
- 백옥자 (음 71)
- 백혜란 (미 70)
- 벤자민 흥 (문 53)
- 서동영 (사 60)
- 서명희 (농 67)
- 서세진 (음 62)
- 서치원 (공 69)
- 선우원근 (공 66)
- 성낙호 (치 63)
- 성주경 (상 68)
- 손갑수 (약 59)
- 손기용 (의 55)
- 손학식 (공 61)

- 송명국 (문 81)
- 신건호 (법 63)
- 신동국 (수 76)
- 신영찬 (의 62)
- 신정연 (미 61)
- 양승문 (공 65)
- 양승조 (음 70)
- 양은석 (음 70)
- 양태준 (상 56)
- 오선종 (의 63)
- 오찬수 (약 57)
- 故 오형원 (의 53)
- 우준식 (상 61)
- 원종민 (약 57)
- 위종민 (공 64)
- 유동석 (음 64)
- 유아중 (농 74)
- 유석환 (치 55)
- 육태식 (의 61)
- 윤경민 (법 55)
- 윤영돈 (법 59)
- 유영자 (음 63)
- 유희성 (치 65)
- 이강훈 (치 65)
- 이건일 (의 62)
- 이경희 (인 83)
- 이기준 (문 54)
- 이명숙 (농 58)
- 이방기 (농 59)
- 이법식 (공 61)
- 이상우 (의 56)
- 이서희 (법 70)
- 이상수 (공 56)
- 이상자 (간 76)
- 이소희 (의 61)
- 이영수 (상 60)
- 이영일 (문 53)
- 이영현 (간 70)
- 이용환 (공 64)
- 이원택 (의 65)
- 이원익 (문 73)
- 이익삼 (사 58)
- 이장길 (치 63)
- 이재권 (간 69)
- 이정근 (사 60)
- 이정남 (공 63)
- 이정화 (공 52)
- 이종모 (간 69)
- 이준호 (상 65)
- (고)이중희 (공 53)
- 이진영 (의 65)
- 이창우 (공 54)
- 이창선 (법 57)
- 이체진 (문 55)
- 이태영 (법 60)
- 이호 (음 92)
- 임동규 (미 57)
- 임동호 (약 55)
- 임문빈 (상 58)
- 임석중 (공 50)
- 장기열 (치 55)
- 장기창 (공 56)
- 장대욱 (음 57)
- 장동석 (문 66)
- 장문섭 (공 69)
- 장병희 (인 86)
- 장소현 (미 65)
- 장용우 (약 57)
- 장원경 (미 73)
- 장유희 (사 54)
- 장인숙 (간 70)
- 장정용 (미 64)
- 장춘호 (공 56)
- 전경태 (의 69)
- 전낙관 (사 60)
- 전남관 (사 71)
- 전범수 (농 71)
- 전상욱 (사 52)
- 전원일 (의 77)
- 정근희 (의 64)
- 정동주 (생 72)
- 정명자 (사 56)
- 정예현 (상 63)
- 정연웅 (상 63)
- 정인환 (법 54)
- 정재형 (약)
- 정철룡 (의 61)
- 정현진 (간 68)
- 정형민 (문 71)
- 정혜령 (간 72)
- 정황 (공 64)
- 제영혜 (생 71)
- 조경애 (음 64)
- 조동철 (사 68)
- 조재국 (농 67)
- 주선희 (문 66)
- 주정래 (상 65)
- 주종자 (간 61)
- 조태욱 (사 60)
- 주정래 (상 65)
- 주훈 (음 69)

- 차중환 (사 54)
- 천원희 (가 71)
- 최복철 (공 70)
- 최영구 (상 61)
- 최영순 (간 69)
- 최영지 (미 62)
- 임동규 (미 57)
- 한귀희 (미 68)
- 한동수 (의 60)
- 한성구 (상 53)
- 한원민 (의 59)
- 한의일 (공 62)
- 한정현 (치 55)
- 한흥택 (공 60)
- 함승욱 (간 73)
- 허기용 (문 64)
- 홍성선 (약 72)
- 홍선일 (공 71)
- 홍수웅 (의 59)
- 황건홍 (공 55)
- 황현상 (의 55)

뉴욕

- Ai Ja Lee
- 고애자 (음 57)
- 계동휘 (치 67)
- 곽선석 (공 61)
- 강상진 (의 53)
- 고순정 (간 69)
- 고재호 (음 57)
- 권문웅 (미 61)
- 권영근 (상 60)
- 권영대 (공 69)
- 권정덕 (의 58)
- 금영천 (약 72)
- 김경일 (치 61)
- 김광현 (미 57)
- 김문경 (약 61)
- 김승호 (공 71)
- 김우영 (상 60)
- 김욱현 (의 59)
- 김영무 (공 75)
- 김영웅 (치 55)
- 김영진 (문 50)
- 김영철 (의 55)
- 김영휘 (법 80)
- 김용원 (문 63)
- 김정희 (간 69)
- 김종원 (가 58)
- 김진호 (간 64)
- 김창수 (약 64)
- 김창화 (미 65)
- 김태일 (공 68)
- 김학자 (간 59)
- 김해암 (의 52)
- 김현중 (공 63)
- 남상래 (간 65)
- 문석면 (의 52)
- 민인기 (의 67)
- 리준우 (음 65)
- 박건이 (공 60)
- 박경원 (미 66)
- 박경희 (음 57)
- 박상수 (음 56)
- 박은규 (약 72)
- 방준재 (의 70)
- 변경웅 (공 65)
- 변호현 (간 63)
- 배상규 (약 60)
- 서병선 (음 65)
- 서중선 (사 57)
- 석창호 (의 66)
- 선중철 (의 59)
- 성기로 (약 57)
- 손갑수 (약 59)
- 손경택 (농 57)
- 손진태 (약 67)
- 송기인 (의 60)
- 송웅길 (대학원 69)
- 송은숙 (간 66)
- 신두식 (의 58)
- 신응남 (농 70)
- 안태홍 (상 65)
- 양성택 (상 66)
- 오용호 (의 66)
- 오용환 (약 68)
- 에드워드 강 (문 60)
- 우규환 (사 60)
- 이상영 (상 55)
- 유인숙 (간 63)
- 유재식 (공 65)
- 유호근 (문 73)
- 육순재 (의 63)
- 윤병남 (사 62)
- 윤영섭 (의 57)
- 윤철 (문 54)
- 윤현남 (공 64)
- 이강욱 (공 70)
- 이대영 (문 64)
- 이명중 (공 72)

네바다

- 김상순 (상 67)
- 김영중 (치 66)
- 김용재 (의 60)
- 이학은 (약 57)
- 정상진 (상 59)

달라스

- 최희기 (공 61)

미네소타

- 김권식 (공 61)
- 문성인 (공 88)
- 민영기 (공 65)
- 박현아 (공 88)
- 성유진 (생 86)
- 이창재 (문 56)
- 주한수 (수 62)
- 황효숙 (사 65)

미시간

- 고광국 (공 54)
- 고선희 (문 63)
- 김국화 (공 56)
- 김우신 (의 60)
- 김정화 (음 56)
- 김재식 (의 61)
- 남성희 (의 56)
- 민영기 (공 65)
- 박용화 (의 58)
- 오동환 (의 65)
- 오혁주 (사 88)
- 이성길 (의 65)
- 장병진 (공 61)
- 조병권 (공 64)
- 주명순 (간 64)

- 이문봉 (미 76)
- 이상근 (상 84)
- 이상우 (의 56)
- 이영숙 (간 60)
- 이영일 (의 60)
- 이유성 (사 57)
- 이재진 (의 59)
- 이준행 (공 48)
- 이충욱 (농 69)
- 이충호 (의 63)
- 이태안 (의 61)
- 이희만 (간 70)
- 이흥우 (공 50)
- 전병삼 (약 54)
- 정동성 (상 58)
- 정인용 (의 71)
- 정해민 (법 55)
- 정화용 (사 61)
- 조남천 (사 59)
- 조대영 (공 61)
- 조득환 (의 61)
- 조중수 (공 64)
- 조태환 (상 56)
- 진봉일 (공 50)
- 차국만 (공 56)
- 최영태 (문 67)
- 최승용 (의 61)
- 최정용 (사 63)
- 최준희 (의 58)
- 최정용 (사 63)
- 최한용 (농 58)
- 최형무 (법 69)
- 한병웅 (문 71)
- 한태진 (의 58)
- 함종금 (간 66)
- 허성력 (의 71)
- 허광현 (의 58)
- 허정열 (사 63)
- 홍정표 (음 67)

뉴잉글랜드

- 곽노균 (상 51)
- 김영철 (공 58)
- 김문소 (수 61)
- 김선현 (약 59)
- 김우동 (사 58)
- 김형범 (문 57)
- 박영철 (농 64)
- 박종근 (의 56)
- 송미자 (농 62)
- 윤상래 (수 62)
- 윤영자 (미 60)
- 이규진 (약 60)
- 이금하 (문 69)
- 이은주 (음 73)
- 이의인 (공 68)
- 임영호 (간 62)
- 장용복 (공 58)
- 정선주 (간 68)
- 정정호 (의 60)
- (고)주창준 (의 50)
- 최선의 (문 69)
- 한서동 (의 61)

- 최병두 (의 53)
- 하계현 (공 64)

북가주

- 강재호 (상 57)
- 김교연 (문 72)
- 김성철 (공 82)
- 김윤걸 (자 77)
- 김정복 (사 55)
- 김정희 (법 56)
- 김현왕 (공 64)
- 남광순 (음 64)
- 박서규 (법 56)
- 박성수 (공 59)
- 박영훈 (공 72)
- 박진영 (공 66)
- 송영훈 (상 57)
- 신규영 (공 64)
- 안호삼 (문 58)
- 윤성희 (사 58)
- 위창호 (의 67)
- 이관모 (공 55)
- 이성원 (공 65)
- 이성형 (공 57)
- 이장우 (문 72)
- 이창한 (공 56)
- 이흥기 (공 62)
- 임승배 (문 66)
- 임정란 (음 76)
- 전병관 (공 54)
- 정지선 (상 58)
- 정준호 (간 67)
- 조태욱 (사 60)
- 최경선 (공 65)
- 한상봉 (수 67)
- 홍병의 (공 68)
- 황동하 (의 65)

샌디에고

- 김인철 (약 70)
- 남정우 (사 56)
- 이문상 (공 62)
- 오계환 (공 64)
- 윤진수 (의 57)
- 이문상 (공 62)
- 이명기 (공 64)
- 이영신 (간 77)
- 임춘수 (의 57)

시카고

- Ja H. Song
- 강영국 (수 67)
- 구경희 (의 59)
- 김길준 (의 59)
- 김동희 (공 66)
- 김규호 (의 58)
- 김병운 (문 65)
- 김성일 (공 68)
- 김승주 (간 69)
- 김영우 (문 66)
- 김용주 (공 69)
- 김용환 (공 71)
- 김윤하 (공 66)
- 김정수 (문 69)
- 김호범 (상 69)
- 김현주 (문 61)
- 노영일 (의 62)
- 민영기 (공 65)
- 박동수 (정 58)
- 박용수 (문 58)
- 박정일 (의 61)
- 박중희 (의 69)
- 박창욱 (공 56)
- 백윤기 (문 56)
- 서상현 (의 65)
- 소진문 (치 58)
- 송재현 (의 45)
- 신석균 (문 54)
- 안영학 (문 57)
- 연경자 (약 65)
- 유기정 (간 72)
- 육길원 (사 59)
- 윤경순 (사 61)
- 윤덕순 (치 62)
- 윤봉수 (간 69)
- 이영미 (미 69)
- 이건정 (공 69)
- 이덕수 (문 58)

- 이동균 (공 75)
- 이소희 (간 68)
- 이승자 (사 60)
- 이시영 (상 45)
- 이용락 (공 48)
- 이흥수 (약 51)
- (고)이윤모 (농 57)
- 이종일 (의 65)
- 장윤일 (공 60)
- 전연학 (공 69)
- 전현일 (농 62)
- 조대현 (공 67)
- 조중행 (의 63)
- 최대한 (의 59)
- 최혜숙 (의 53)
- 최희수 (문 67)
- 한의일 (공 62)
- 한재은 (의 59)
- 홍근 (의 64)
- 홍성일 (약 57)
- 황소나 (문 65)
- 황치용 (문 65)

아리조나

- 진명규 (공 70)

오레곤

- 김영자 (간 56)
- 박희진 (농 78)
- 최용성 (의 55)
- 한국남 (공 57)
- 한영준 (사 60)

오하이오

- 명인재 (자 75)
- 박근 (공 74)
- (고)이영욱 (의 57)

워싱턴 DC

- 강기중 (약 69)
- 고의걸 (의 55)
- 곽명수 (문 65)
- 권철수 (의 68)
- 권오근 (상 58)
- 김기봉 (공 63)
- 김기환 (공 67)
- 김내도 (공 62)
- 김부근 (의 58)
- 김영란 (사 58)
- 김윤호 (공 64)
- 김용환 (치 88)
- 김희주 (의 62)
- 나윤수 (사 57)
- 남종일 (사 69)
- 박인영 (의 69)
- 박일영 (문 59)
- 박찬모 (공 54)
- 박후우 (문 61)
- 배성호 (의 65)
- 백순 (법 58)
- 백용현 (공 64)
- 서윤석 (의 62)
- 석규범 (문 61)
- 신경은 (문 65)
- 오인환 (문 63)
- 양용관 (수 62)
- 유재형 (상 54)
- 유영신 (인 74)
- 유영준 (의 74)
- 이건형 (수 54)
- 이규양 (문 62)
- 이내원 (사 58)
- 이서구 (문 61)
- 이선구 (문 65)
- 이성배 (수 57)
- 이연주 (치 88)
- 이영덕 (사 61)
- 이윤주 (상 63)
- 이재승 (의 55)
- 이종근 (의 52)
- 이준영 (치 74)
- 이진상 (공 57)
- 이철수 (공 61)
- 임광록 (간 72)
- 전희순 (간 76)
- 정영자 (사 56)
- 정원자 (농 62)
- 정평희 (공 71)

- 조병선 (의 65)
- 천권희 (간)
- 최경수 (문 54)
- 최대영 (의 73)
- 최재귀 (미 63)
- 한의생 (수 60)
- 한광수 (의 57)
- 홍영석 (공 58)

워싱턴주

- 권영희 (약 66)
- 김교선 (법 54)
- 김인배 (수 59)
- 김재훈 (공 72)
- 류성열 (공 72)
- 박진수 (의 57)
- 변동혜 (법 58)
- 안승적 (농 59)
- 윤석진 (문 64)
- 윤태근 (상 69)
- 이길송 (상 57)
- 이명자 (간 74)
- 이연주 (치 88)
- 이희백 (의 55)
- 정영자 (사 56)
- 최준한 (농 58)

유타

- 김인기 (문 57)

조지아

- 김기훈 (공 61)
- 김영서 (상 54)
- 김종구 (수 73)
- 김현희 (간 59)
- 백낙영 (상 61)
- 서광모 (공 65)
- 소용덕 (의 57)
- Steve Sung
- 오경호 (수 60)
- 윤영돈 (법 59)
- 은철수
- 이종석 (의 54)
- 임수암 (공 62)
- 임한웅 (공 60)
- 정선휘 (공 65)
- 최덕순 (간 58)
- 최종진 (의 63)
- 한성수 (의 54)

캘리포니아

- 이종영 (음 58)
- 정신호 (자 78)

커네티컷

- 라찬국 (의 57)
- 최창송 (의 58)

테네시

- 권준희 (가 87)
- 김경덕 (공 75)
- 서갑식 (공 70)
- 임효순 (간 71)

텍사스

- 김정환 (공 81)
- 유항 (농 56)
- 윤영주 (문 60)
- 조진태 (문 57)
- 전양공 (의 63)
- 전중희 (공 56)
- 진기주 (상 60)
- 황명규 (공 61)

플로리다

- 김성준 (의 55)
- 김중권 (의 63)
- 이영덕 (농 64)
- 이윤주 (상 63)
- 이재승 (의 55)
- 이종근 (의 52)
- 이준영 (치 74)
- 이진상 (공 57)
- 이철수 (공 61)
- 임광록 (간 72)
- 전희순 (간 76)
- 정영자 (사 56)
- 정원자 (농 62)
- 정평희 (공 71)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 55)

- 강주철 (사 59)
- 김경희 (가 71)
- 김국간 (치 64)
- 김규하 (상 63)
- 김현영 (공 58)
- 김현영 (수 58)
- 손재욱 (가 77)
- 송성균 (공 50)
- 서의원 (공 66)
- 서종민 (공 64)
- 성기호 (상 59)
- 성정호 (약 59)
- 신선자 (사 60)
- 심영석 (공 76)
- 안세현 (의 62)
- 엄종렬 (미 61)
- 오진석 (치 56)
- 유영걸 (의 70)
- 윤종순 (문 59)
- 윤정나 (음 57)
- 이규호 (공 56)
- 이성숙 (생 74)
- 이수경 (자 81)
- 이지춘 (미 57)
- 이홍일 (상 70)
- 조화연 (음 64)
- 전무식 (수 61)
- 전방남 (상 73)
- 정덕준 (상 63)
- 정학량 (약 56)
- 정흥택 (상 61)
- 조정현 (수 58)
- 주기목 (수 68)
- 지흥민 (수 61)
- 최중무 (상 63)
- 최현태 (문 62)
- 한동훈 (문 57)
- 한수웅 (의 55)
- 한용우 (보 70)

하와이

- 김달욱 (사 55)
- 김용수 (농 75)
- 김용균 (공 63)
- 안은식 (문 55)
- 이재형 (수 61)
- 최경윤 (사 51)
- 하인환 (공 56)

하트랜드

- 김경숙 (가 70)
- 김재경 (공 64)
- 김태찬 (음 80)
- 김시근 (공 72)
- 배규영 (사 68)
- 오명순 (생 69)
- 이광자 (간 63)
- 이상강 (의 70)
- 이주현 (미 92)
- 이치현 (약 77)
- 임소은 (음 91)
- 정민재 (농 71)
- 조원지 (문 63)
- 호민선 (상 59)

휴스턴

- 김영일 (의 55)
- 박석규 (간 59)
- 박유미 (약 62)
- 박태우 (공 64)
- 이길영 (문 59)
- 이윤성 (수 81)
- 이은애 (음 81)
- 이학호 (수 59)
- 진기주 (상 60)
- 최관일 (공 54)
- 최성호 (문 58)
- 최용천 (의 53)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5.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동석 (음 64)	100
김성환 (의 65)	300
송영두 (공 59)	200
박우선 (공 57)	300
박중수 (수 58)	10,000
박한영 (치)	100
백만일 (공 64)	200
백옥자 (음 71)	200
벤자민 흥 (문 53)	1,000
손기용 (의 55)	200
양은석 (음 70)	500
양승문 (공 65)	200
이범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이영일 (문 53)	10,000
이채진 (문 55)	200
임낙균 (약 64)	10,000
전상욱 (사 52)	1000
정균희 (의 64)	200
한귀희 (미 68)	50
한정현 (치 55)	500
황현상 (의 55)	100
뉴욕	
곽선섭 (공 61)	200
신용남 (농 70)	700
김광현 (미 57)	200
김해암 (의 52)	100
리준무 (음 65)	200
문석면 (의 52)	200
우용환	1,000
윤철 (문 54)	200
이준행 (공 48)	1,000
조남천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허선행 (의 58)	2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2,000
주창준 (의)	200
네바다	
김상순 (상 67)	2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커네티컷	
최창승 (의 58)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300
워싱턴DC	
강길중 (약 5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민홍기 (문 61)	1,000
서윤석 (의 62)	200
박평일 (농 69)	1,000
백순(법 58)	100
정평희 (공 71)	200
시카고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200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1,500
조지아	
이종석 (의 54)	200
최종진 (의 63)	500
한성수 (의 54)	200
테네시	
김경덕 (공 75)	200
텍사스	
황명규 (공 61)	200
필라델피아	
최창승 (의 52)	500
손재욱 (가 77)	500
플로리다	
김종권 (의 63)	400
오석일 (의 64)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2,000
하와이	
(고) 전영표 (문 55)	1,000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 81)	480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탁 (공 65)	240
이중모 (간 69)	240
정균희 (의 64)	240
정재훈 (공 64)	240
하기환 (공 66)	240
김경무 (공 69)	240
김원탁 (공 65)	480
김일영 (의 65)	480
김자성 (의 79)	240
신동국 (수 76)	240
최무식 (약 66)	240
아주투어	500
김양희 (인 83)	240
이병준 (상 55)	240
이상대 (농 80)	240
이승훈 (상 74)	240
이태영 (법 60)	480
뉴욕	
김승호 (공 71)	240
김치갑 (의 73)	240
박종호 (의 79)	240
신용남 (농 70)	480
석창호 (의 66)	240
이전구 (농 60)	240
오레곤	
박희진 (농 78)	24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40
장학기금	
남가주	
노명호 (공 61)	10,000
박원준 (공 53)	300
뉴욕	
선종철 (의 59)	100
신용남 (농 70)	400
홍성선 (약 72)	100
미시간	
고광국 (공 54)/	100,000
고국화 (공 56)	
시카고	
김현주 (문 61)	3,000
이용락 (공 48)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테네시	
권준희 (가 87)	15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김양희 (음 77)	900
김자성 (의 79)	1,500
류원 (대학원 74)	1,500
미주재단	13,000
박수경 (생 84)	3,9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경희 (인 83)	300
이병준 (상 55)	1,500
이전구 (농 60)	1,500
하기환 (공 66)	1,000
홍훈경 (음 70)	300
뉴욕	
김승호 (공 71)	1,500
이전구 (농 60)	1,5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 (공 57)	3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100
최재귀 (미 63)	200
한광수 (의 57)	300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뉴욕	
신용남 (농 70)	200
인명록비	
뉴욕	
신용남 (인명록 책값)	50

Brain Network

뉴욕	
신용남 (농 70)	200
시카고	
한재은 (의 59)	100
워싱턴 DC	
오인환 (문 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나눔기금(Charity Fund)	
남가주	
주선희 (문 66)	50
뉴욕	
조태환 (상 56)	100
신용남 (농 70)	300
펜실베이니아	
신의석 (공 53)	5,0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제 33차 평의원 회비	
남가주	
강미자 (음 62)	
김기형 (상 75)	
김병완 (공 58)	
김홍목 (문 60)	
이중모 (간 69)	
이채진 (문 55)	
민일기 (약 69)	
박중수 (수 58)	
이창렬 (상 67)	
전경배 (의 69)	
조두연 (수 62)	
조정시 (공 60)	
임춘택 (상 68)	

뉴욕	
신정윤 (공 60)	
신용남 (농 70)	
이희만 (간 70)	
조상근 (법 69)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룩키타운스	
권순영 (간 69)	
커네티컷	
김창수 (의 54)	
조지아	
김명숙 (약 69)	
미시간	
고광국 (공 54)	
고국화 (공 56)	
조병권 (공 64)	
워싱턴 DC	
박평일 (농 70)	
미네소타	
황효숙 (사 65)	
필라델피아	
김현영 (수 58)	
윤정나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김경숙 (가 70)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시는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 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2024/7~2025/6, 1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240 (2024/7월 ~ 2025/6월, 1년)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 ~ 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장학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Color \$400	<input type="checkbox"/> \$500 (1년)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c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Law Offices E. PETER SHIN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박중호 소아과	
박중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Seoul Korea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t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encevilla Hwy, Lilburm, GA 30345
H1C(Health 1 Care) / 김창석내과
강창석 (의대 73)
T: 770-497-4188
10710 Medlock Bridge Rd, Ste 200, Johns Creek, GA 30097
필라델피아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텍사스
UNIFAITH Co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아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오경호 (수의대 60)

Abbott Animal Hospital



 Sick Pet visits and Urgent care

 Routine Surgery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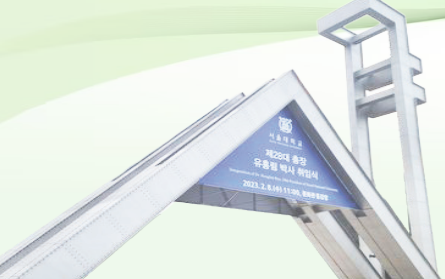
 International Health Certificates

 Boarding & Walks on our Nature Trails

 Humane Euthanasia


5534 Lawencevilla Hwy, Lilburm, GA 30345

W. abbotanimal.com | T. (770) 921-2121 | E. info@abbotanimal.com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중섭(문)
고문: 이영일(문) 이채진(문) 박중수(수)
박창규(약) 이흥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종(농)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효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차),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국장: 최경석(사)/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Database 국장: 장병희(문), 나용화(생)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백옥자(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공동위원장
박평일(농), 공동위원장

위원: 고 김영구(공), 신응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나눔위원회

위원장: 이성숙(가)

위원: 정태광(공), 유미영(음)

감사: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4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차기 회장 채규환(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pkim@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송오석(공대 91) T: (858) 349-6674
osoksong@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ft@hot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 (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5)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룩키타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jok@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uon@hot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조규성(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차기 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뉴욕 NY/NJ (July~Jun)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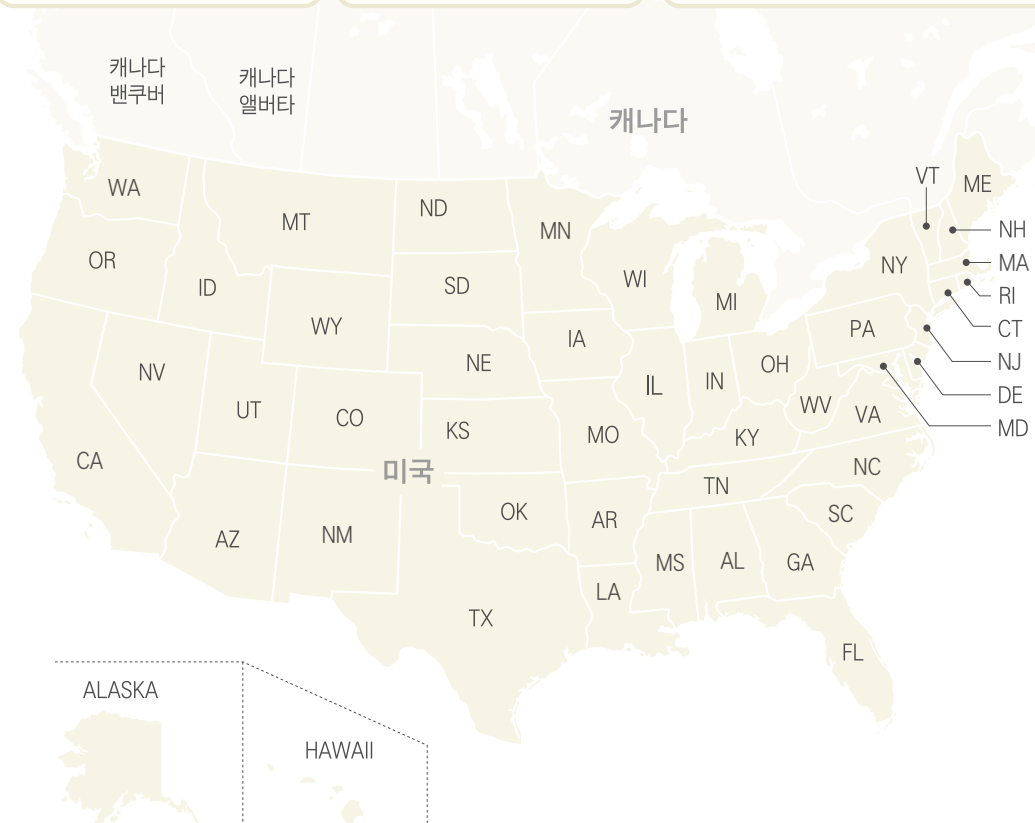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 85)
T: (828)242-7150
hwajinkimdma@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com@alum.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듀오 뉴욕/LA 지사
구인광고 - 40대 영어와 한국말 필수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오늘까지 일구어온 모든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엔 더 가슴 뛰는 이야기가 꽃피울 수 있도록,
귀하의 가문만을 위한 서비스를 디자인합니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영속적 가문 자산관리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웰씨앤와이즈 패밀리오피스

Next Generation Education
다음세대 교육

Investment Strategy
투자전략

Concierge
컨시어지

Philanthropy
필란트로피

Wealthy & Wise
 | Baltimore | Honolulu | Seoul
 | 410.469.9532 | 345 N. Charles St, Baltimore, Maryland
 | 808.427.8434 | 1003 Bishop St, Suite 2700, Honolulu, Hawaii
 | www.wnwinc.co.kr | info@wnwinc.co.kr
 | 이태영 (법학과 60) 웰씨앤와이즈 설립자, 상임고문
 | 박상우 (경영전문대학원 06) 웰씨앤와이즈 한국법인 대표이사

H1C
HEALTH 1 CARE
healing one at a time

강창석내과

Office Hours
Mon-Fri: 9am-6pm
Sat: 8am-12pm

진료과목
일반내과/ 신체검사/ 예방접종, 빈혈, 당뇨, 콜레스테롤, 갱년기호르몬, 전립선암, 갑상선 검사, 심전도, 초음파, X-ray 검사(흉부, 척추, 골반, 복부, 팔, 다리), 24시간 심장박동검사, 24시간 혈압검사, 수면장애 검사, 골다공증검사

강창석 (의대 73)

Address
10710 Medlock Bridge Rd.
Suite 200
Johns Creek, GA 30097

Email
info@health1care.org

Phone
t. 770.497.4188
f. 770.497.4189

손재옥(생과대 77)



PARKING | **PLANNING**
ENGINEERING | DESIGN
 RESTORATION

www.tha-consulting.com | Janice Haahs jhaahs@tha-consulting.com



HEADQUARTERS
PHILADELPHIA, PA

ADDRESS
 470 Norristown Road, Suite 200
 Blue Bell, Pennsylvania 19422
TELEPHONE 484-342-0200
FAX 484-342-0222

NEW BRUNSWICK, NJ

ADDRESS
 144 Livingston Avenue
 New Brunswick, New Jersey 08901
TELEPHONE 732-253-0690
FAX 732-253-0689

ATLANTA, GA

ADDRESS
 410 Peachtree Parkway
 Cumming, Georgia 30041
TELEPHONE 770-850-3065

MIAMI, FL

ADDRESS
 40 NW 3rd Street, Suite 1102
 Miami, Florida 33128
TELEPHONE 305-592-7123
FAX 305-592-7113